

고통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지만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0월 9일 (토) 제 184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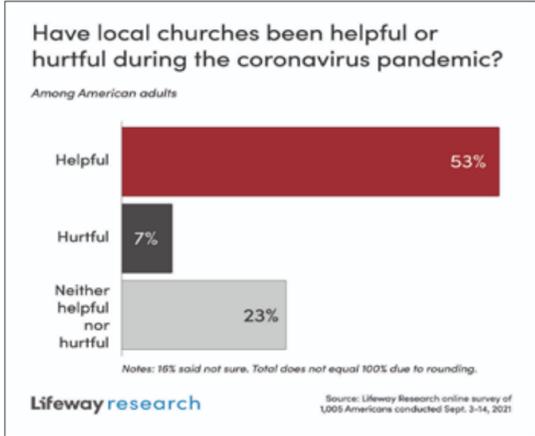
# 팬데믹에도 교회는 지역사회 섬겼다!

## 라이프웨이, '미국인 53%, 지역사회에서 교회 봉사/공헌/교육 사역 도움 인식' 보도

최근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 의료 부담 및 사업 폐쇄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교회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일부는 교회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보지 못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인의

53%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교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27%는 교회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소수(7%)가 지역 교회가 해롭다고 생각했지만 상당한 숫자는 도움이 되지도 해롭지도 않다고(23%) 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16%)고 말했다(Most Americans See Churches as Helpful During Pandemic).



미국인의 53%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고 27%는 교회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종종 접하는 실제적인 필요 중 많은 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라이프웨이, 스캇 맥코넬은 말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인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해 알리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50세 미만의 대부분의 미국인은 전염병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교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노인들은 덜 도움을 받았다. 18-34세(56%)와 35-49세(63%)는 50세 이상(46%)보다 지역 교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 중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72%)은 덜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42%)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교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종교가 없는 미국인(12%)은

개신교인(6%)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가능성이 2배나 높다. 히스패닉(13%)은 백인(6%)과 아프리카계 미국인(5%)보다 2배 이상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미국인(53%)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역 교회나 지역 기독교인들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교회가 하는 다른 일반적인 봉사행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10명 중 4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교회(40%)를 알고 있고, 10명 중 3명 정도는 기독교인이 재난 피

해자를 돕고(31%) 노숙자 보호(28%)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학교 지원(16%), 산모 지원(16%),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14%), 교도소 사람들과의 만남(13%), 위탁양육 자원 봉사(13%) 보육(12%) 또는 학교 아이들을 지도(11%)한다.

미국인 10명 중 1명 미만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직업 기술을 가르치거나(9%) 세금 준비를 제공(6%)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을 발견했다.

미국 성인의 15%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역 교회나 교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다른 15%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에서 교회가 봉사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감소했다. 2016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서 오늘날까지 조사된 13개 행위 중 10개 행위에서 지역 교회나 그 회원이 그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5년 전 어떤 교회가 섬기고 있는지 알고 있는 미국인들은 평균 4.8개의 다른 방법을 나열했다. 오늘날 그 숫자는 3.6으로 떨어졌다.

“지난 가을, 미국 개신교 목사의 8%가 자신의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사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과 안전 지침 때문에 더 많은 교회가 적어도 한 시즌 동안은 다른 활동 영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라고 맥코넬은 분석한다. “교도소는 방문객을 금지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많은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전하게 섬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역이 재개됨에 따라 많은 교회에서 예전에 가졌던 모든 자원 봉사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공하는 것을 늘리고 있습니다.”

(3면으로 계속)



#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예수님뿐이다!”

## 처치리더스컴, 랜디 알콘 목사가 전하는 아프간을 위한 기도/도움 방법 소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오직 예수님뿐이다.” 지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질문과 답변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가져온 것임을 먼저 밝힌다 (Ways to Pray and Help Afghanistan Right Now).

아프가니스탄 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위태롭다. 우리는 언론뿐만 아니라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도 탈레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특정한 사람들을 얹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탈레반이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서양과 협력한 모든 사람들(특히 교사), 동성애자, 그리고 비이슬람교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누구든지 드러나기만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납치, 고문, 살해, 그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2017년, 탈레반에 의해 게스트하우스가 공격당했을 때 한 독일 여성과 아프가니스탄 경비원이 살해됐다. 그들은 또한 2014년, 카불에서 남아프리카의 한 가족을 살해했다. 만약 외국의 구호 요원들조차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각각의 반응은 다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포스트코드,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2000-usa.com / cjb2019@j2000.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일,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날 때부터 말** 김바 되었고

부제: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민자의 자녀양육

저자 **김종환** 교수  
달라스 침례대학교 신학대학 부학장, 기독교교육학 교수  
Associate Dean an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Mary C. Crowley College of Christian Faith  
Dallas Baptist University

**이민생활 37년차**  
**기독교 교육학 김종환 교수의**  
**자녀양육 멘토링**

“미주 한인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언어, 문화, 세대, 지역 등의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기독교교육의 전문가 김종환 목사는 이 책을 통해 미주 한인 부모들이 가야할 길을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저자의 고민, 경험, 지혜, 연구 등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61가지의 이야기는 이민자 자녀양육의 장애물을 하나씩 넘는 놀라운 경험을 독자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이민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버지니아 헬로쉽교회 **현지용** 목사 추천

**Jura**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비영리단체 주라 인터내셔널(JURA INTERNATIONAL)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온라인 구매 : WWW.HISFINGERMALL.COM 달라스 지역 : 북나라(BookNara) 2625 Old Denton Rd #328 Carrollton, TX 75007 (972)245-2665

**Hisfinger**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들과...(시 8:3) ...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출판상담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발행인 칼럼

담을 넘어 통섭(統攝)으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금 이 칼럼을 읽는 사람 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타인의 담”에는 갇혀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말할까?” “그 사람 말을 거부하면 내게 크게 실망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내뱉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 아예 나를 떠날지도 모르지” 등의 생각으로 자신을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분명히 자기 견해가 있음에도 타인의 눈치를 보며 거의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럴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자기를 일생 가두어 두었던 “타인의 담”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내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그 타인은 정작 자신의 삶에는 성실할 가능성이 적다. 자기 성찰에 분주한 사람이 왜 맨날 남 참견을 그토록 하겠는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타인의 의견과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난다. 골목의 집마다 담벼락이 있었고 그 담 위에 날카로운 병 조각을 심어 놓거나 무서운 철조망으로 이중삼중으로 집을 보호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타인의 의견도 평가도 필요 없으니 내 인생에 담벼락을 세우고 그 위에 병 조각을 심고 철조망을 둘러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인가? 또 한 적절치 않으리라.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 타인의 담에 갇혀 사는 것도 나 홀로 담쌓고 사는 것도 온당치 않다. 통섭(統攝)이 필요하다. 통섭이란 어울림인데 그냥 어울림이 아니다. 통섭은 서로를 이끌어주고 인정해주는 어울림이다. 너와 내가 어울려 차원 다른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 통섭의 삶이다.

자기의 의(義), 자기 고집이 유별났던 바울은 “자기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타인의 담”에도 갇혀 사는 모순의 삶을 살았다. 자신의 담 너머에 있는 타인들의 평가에 늘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다메섹 사건 전에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통섭의 삶으로 바뀌었다. 다메섹은 바울의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다. 하나님과의 담은 물론이요, 자신의 담 그리고 갇혀있던 타인의 담까지 일거(一擧) 허무는 일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있었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저서 “통섭(Consilience)”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제(諸) 학문은 단독적으로 존재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서로가 함께 어울리는 “통섭”이 필요함을 갈파하였다. 학문의 통섭은 이전부터 있었던 자기 전공과 함께 그것과의 연관을 전혀 생각지 않는 제 2전공을 택하는 생계적(?)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 차원의 방향이다. 경제학은 여러 수치와 분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함께 살펴보고야 하고, 심리학은 그 사람의 마음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뇌의 상태에 대한 생물학적 조사도 요청한다는 면에서 그렇다. 통섭의 학문 시대가 이미 도래 하였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팬데믹 이후 더욱 요청되는 삶은 서로를 경계하는 세분화(細分化)의 삶이 아니다. 서로의 담을 넘어서는 통섭의 삶이 필요하다.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욕망하는 인간 그리고 그 욕망의 결핍 “오징어 게임”

기독교인의 문화읽기, “오징어 게임”에서도 구원의 메시지 전해야 하는 이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10월 2일 발표된 플릭스페스트를 차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은 드디어 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83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전 세계 83개국 중 83개국을 점령한 것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다. ‘오징어게임’ 이전 최고기록을 세웠던 작품은 스페인 드라마 ‘종의 집’이다.

테드 서랜드스(Ted Sarandos)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책임자(CEO) 겸 최고콘텐츠책임자(CCO)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코드컴퍼런스 2021’에서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징어게임’이 매일 최고 성적을 경신한 것은 오픈과 동시에 전회차가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특성상 입소문을 통한 꾸준한 시청자 유입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록이다.



‘오징어 게임’은 돈이 없어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참가자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야기다.

게임에서 승리하면 456억원을 가질 수 있지만 탈락하면 죽는다는 다소 폭력적인 설정을 하고 있다.

게임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결과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양을 좀 더

더 분명하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기혼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는 ‘오징어 게임’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456억을 벌고 싶다고 욕망한 적이 없다. 주최 측, 그러니까 사회가 참가자에게 이러한 욕망을 주입한 것이다. 456억 같이 거창한 액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욕망은 늘 이런 식으로 발현된다. 맛있는 광고를 보거나, 친구의 자랑을 듣거나, 연예인이 들고 다니거나 하는 이유로 우리는 또 새로운

욕망하는 인간의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오직 진정한 “간부” 이신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은유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즉 세상이 살벌한 건 복잡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계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럿이 살아 가며 부대끼는 경쟁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거기서는 누구든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만 무서운 건 경쟁사외 자제가 아니고 그 결과다. 우리의 현실은 진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생존경쟁 이야기만큼, 게임 바깥으로 나와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하다. 한 순간에 피가 튀는 지옥으로 변한 게임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게임을 중단시키고 현실로 돌아온 이들이 그곳의 삶이 더 지옥이라

는 걸 깨닫고 다시 게임 속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아무도 모른 채 소각대버리는 그 지옥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라는 것.

이것은 주인공 기훈(이정재)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에도 똑같이 드리운 시각차다. 즉 기훈 같이 무능력한데다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기까지 하는 인물을 감독이 주인공으로 세워 일종의 희망으로 그린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불편한 시대착오라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황동혁 감독은 기훈을 이 살벌한 세상의 대안적인 히어로로 제시하기보다는 불안전하고 불편하게까지 느껴지는 그저 운 좋은 부조리한 인물로 제시한다. 그는 결코 이 경쟁적 중단시키고 현실로 돌아온 이들이 대신 경쟁 속에서 자신의 욕망

에 휘둘리고 그래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 보통 사람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이 게임 어디에서도 승자는 없다. 이전에 이 게임 속에서 최후의 1인이 된 자가 그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실은 명백해진다. 이것은 기훈도 마찬가지다. 그가 승마장에서 달리는 말들에 돈을 걸고 제 욕망을 불사하는 것처럼, 이들 바깥에는 이른바 VIP들이 저 살벌한 경쟁을 보며 욕망의 쾌감을 얻어간다. 하지만 그들도 승자처럼 보일진 않는다. 엄청난 부자가 돼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된 그들은 이제 그런 극단의 쾌감이 아니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니.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내뽐는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을 ‘오징어 게임’에 적용하면 이 드라마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것을 사고 싶어진다. 돈을 벌 만큼 벌면 끝인가? 돈에 흥미가 떨어지면 인간은 다른 것을 욕망한다. 최종회에서 일남(오영수)은 재미를 위해 이 게임을 기획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즐거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의 게임들을 바탕으로 데스게임을 설계한다. 이때 자신의 어린 시절은 일남에게 또 하나의 타자가 된다. 자신이 영원히 불잡을 수 없는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이 역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욕망은 모두 해소되지 못한다. 기훈은 우승자가 돼 456억을 손에 쥐었지만 1년 동안 그 돈을 쓰지 못한다. 일남은 ‘사람을 만나며 기훈에게 죽기 전 마지막 내기를 제안하지만 그 내기에서 패배하고 숨을 거둔다. (16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 내 - 지아이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장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팬데믹에도 교회는 ...

(1면에서 계속) 지역 교회공동체가 대부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역 활동을 한다는 것을, 35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복음주의적 믿음을 가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 다른 모든 봉사 활동보다 음식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은 미국인의 3분의 1이 과거에 가족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품 저장실에서 음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때문일 수 있다. 3명 중 2명(65%)은 가족 중 누구도 그러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미국인은 더 적지만 가족이 그러한 도움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미국인은 더 많다. 2014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22%는 그들의 가족이 그러한 사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33%와 비교된다. 맥코넬은 "미국인에게서 교회가 가족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말의 증가는 전염병 기간 동안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대공황이 끝난 후 식량을 남에게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관대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사역은 지역 교회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기독교인(37%)은 덜 자주 참석하는 기독교인(24%)보다 가족이



교회 식품 저장고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들에게 남은 건...

(1면에서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비밀 신자로 남기로 한다. 일부는 탈출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은 'World Watch List(세계감시목록; 기독교박해국가목록)'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은 2위를 차지했다. 1위인 북한과 아주 약간의 차이만 날 뿐이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몇 년간 박해가 급증했고, 탈레반의 장악으로 이제 또 다른 박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위험과 위험이 증가했다.

우리가 신도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현재 세계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 뿐이다. 그들에게 아주 얇은 보호막이나 정도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들과 함께 있다.

어려움을 느낀다면 시편에 초점을 맞출 것을 추천한다. 나는 매일 시편 1편에서 3편을 통해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적용한다. 여러분에게 시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돕는 방법

미국 'Open Doors(오픈도어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비폭력적 임무를 맡은 곳)'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는 5가지 방법':

1. 정부의 붕괴, 샤리아(Sharia) 법 선언, 극단주의의 확대, 식량 부족, 그리고 맹렬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며 지금 당장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소수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은 눈치를 보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막막하다. 특히 그들의 공동체에서 믿음이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힘과 지혜와 초월적인 평화를 찾도록 기도하라.

3. 여성을 위해 기도하라. 많은 여성들은 탈레반의 통치가 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길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 또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라.

4.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국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COVID-19 사례는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고 병원은 제한되어 있다.

(15면에서 계속)

시론

실종 백인여성 증후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언론 매체의 중심을 차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와이오밍 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개비 페티토(22세)라는 한 백인여성의 실종과 사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에 페티토(Petito)와 그녀의 약혼자인 론드리(Laundrie)가 미서부 지역을 횡단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된 이 여행 중에 페티토는 가족 시구들 및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8월 말경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되고 9월 1일 약혼남인 론드리 홀로 플로리다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딸 페티토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은 약혼남에게 행방을 묻지만 바른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열흘이 지난 9월 11일 페티토의 부모님들은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이 약혼남 론드리 집을 방문하여 약혼녀인 페티토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9월 17일 약혼남인 론드리와의 연락이 끊기며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이를 뒤인 9월 19일 약혼녀 페티토의 시신이 와이오밍에서 발견됩니다.

한 백인여성의 실종에 대해서 미전역의 언론 매체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도 처음 이 뉴스가 올라왔을 때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종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매일 톱뉴스로 인터넷의 주요언론 매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뜻 머리속을 스쳐가는 생각으로 '아마도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잘 알려진 젊은 여성인가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유명한 언론매체들의 톱뉴스를 차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페티토라는 여성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낯선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취재를 했던 것이지요.

이번에 언론매체가 취한 보도행동에 대해 많은 지각이 있는 언론인들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실종사건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페티토의 경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질문을 하며, 그 이유로 그녀가 '젊은 백인여성'이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심지어 '실종 백인여성 증후군'(missing white woman syndrome)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질 만큼 미국 사회와 언론조차도 피부색깔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사람의 연쇄살인범에 의해 51명의 여성이 20년에 걸쳐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75%가 흑인여성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주류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들의 피부색 차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현상에 대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도 자세에 별 변화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과서의 이론과 사상 속에 존재하는 평등이 현실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평등은 가장 먼저 피부색깔과 인종이라는 불평등의 옷을 입고 잔인한 차별주의로 추락하여 특정한 피부색깔을 옹호하거나 무시하는 기해자로 변질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편견되고 모순된 피부색 이론과 사상 속에서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며 이 깊은 피부색의 계곡을 메우고 이어줄 태산보다 더 높고 깊은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함과 받아주시고 희생 앞에 총참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살롬!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유럽 \$240, 남미 \$240, 아프리카 \$240.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전도는 필수 과목이다!

한국에서 유명한 전도자 인 천의 안 권사를 모르는 목회 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원래 믿지 않던 분이였다. 어 려운 질병 가운데 절망에 부 딴혔을 때 교회에 나갔다가 고침을 받았다. 무나 놀랍고

감격해서 자신의 변화를 신명 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이 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이 더욱 신통 해서 매일매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시작된 전도의 섬김이 평생 이어갔다.

한 번은 길가는 여인에게 예 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별로 신 통한 반응이 없어서 수퍼마켓 까지 따라가서 계속 전도를 했 다. 이 여인은 주섬주섬 물건을 사들고 내빼듯이 나갔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서 어느 동네 사시냐? 고 물었더니 다 동이는 대답만 남기고 사라졌 다. 안 권사는 결코 포기할 모 르고 기도하면서 이 여인을 찾 기를 한 달이 넘었다. 수퍼마켓에 가서 그 여인의 외모 인 상을 얘기하면서 집을 아느냐? 했더니 그 집은 지금 초상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안 권사는 초상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7 명에게 전하고 등록을 받았다고 한다. 안 권사의 전도는 일 년에 만명이 넘는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기네스북에도 올릴 만한 기록이라 하겠다.

미국 소매상인협회의 조사 에 의하면 세일즈맨 48%가 고 객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

고,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 기하고, 15%는 세 번 만에 포 기한다는 통계를 얻었다. 결국 88%의 세일즈맨들이 한 번에 서 세 번 전화로 판매를 권하 고 포기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오직 12%만이 끈질기 게 권유를 해서 판매실적을 올 리는데 이 판매원들이 전체 판 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한 다. 참 대단한 일이다. 결국은 88%의 판매원들이 겨우 20% 밖에는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 하지만 12%의 소수가 88% 판 매실적을 올린다고 한다. 영혼 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값으로 환 산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은 형체도, 물건도 아닌 것이 결 국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처방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민 장로님은 연방 교통국의 고위직에서 근무했 다. 물론 처음엔 말단으로 출 발했지만 고속 승진하게 된 배 경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 돌려대셨다. 맨해튼의 사무 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찍 출근

하고 늦게 퇴근했다. 아침저녁 으로 직장근처 지하철 정거장 에서 수십 년 동안 거리전도를 하셨다. 많은 사람을 옴은 데 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 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 하신 주께서 승진을 상급으로 주셨다고 믿는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전도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셨다. 그리고 매일매 일 이제는 거리전도에 전념하 고 있다. 매일 하루에 30명 이 상 결신하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하루도 미달된 적이 없다고 하셨다.

몇 해 전에 민 장로와 나는 1 박2일 씨드선교회 이사회에 참 여한 적이 있었다. 뉴욕에서 운 전하고 버지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시작되어 밤늦게 끝났다. 곧 이어 숙소로 이동하 여 고단한 몸을 쉬었다. 그 오 고가는 사이에 민 장로님은 호 텔 로비에서 복음을 전한다. 다음날 아침도 일찍 일어나 조찬 과 기도회로 미팅을 계속했다. 끝난 후에는 곧 바로 자동차로 뉴욕으로 이동했다. 외부인은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너무 늦지 않도록 귀가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지만 뉴욕 가까 이 와서는 화장실을 들려야만 했다. 어제 오늘 땅을 밟아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이 때 를 놓치지 않고 민 장로님은 또 휴게실에서 전도를 이어가셨 다. 언제 어디서라도 사람만 마주치면 어김없이 '하이!~~~ 플 리즈, 아 유 세이브?'라고 도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3분이 내로 영접기도까지 끝내도록 자신만의 전도지를 만들어 사 용하고 있다. 교우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점 점 더 전도하는 교우들이 늘어 나고 있다.

코비드 시절이지만 복음전 도는 멈출 수 없다. 오는 주일 오후에도 동네 마켓으로 전도 나간다는 광고를 또 주보에 실 었다. 전도는 성도들의 선택과 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다.

jkim47@gmail.com



#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주기쁨교회)



낮이면 뜨거운 햇볕아래 아스 팟트 위에 하얗고 앉아서 산 을 바라보고, 밤이면 그 흔한 종이 박스 한 장 깔지 않고 차 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 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노숙인에게 대하듯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대하였을 까? 돈 몇푼 손에 쥐어주고 예 수님 이걸로 맛있는 거 사서 드 세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곳 에 앉아 있지 말고 나무 그늘에 앉아 계세요. 밤에 주무실 때는 비와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빈 공간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박스라도 깔고 주무세요. 라고 하였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정신 이상자인가?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만하고 있는 동안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떠나가고 말았 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가족에게로 돌아갔는지? 그것도 아니면 더 불행한 일을 당하였는지 알 길 이 없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값으시리라."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게, 티 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감 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것 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값어 주실 것을 믿고 조용히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으로 하 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 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눅 12: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 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수고하여 모은 재산으 로,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 하는 것들로 구제하는데 사용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하길 바라거나 기다리 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하게 하라'

으로 행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 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 한다하여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한다하여 부족 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한다 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여 풍성함과 풍부 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값어 주신다'고 말 씀하십시오.

우주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 이 잊지 않고 값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19:17) "가난한 자 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 행을 그에게 값어 주시리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 궈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서 반드시 값어 주신다 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값어 주신다는 것입니 다.

세 번째는 '기억하신다'는 것 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구제할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칭찬하 시며 복내려 주신다고 말씀하 십니다. (행10:2,4) "그가 경건 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 니." "고벨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 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 하신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서는 구제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과 보 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 하여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은 생명도 살린 다'고 말씀하십시오.

구제를 평생 진심으로 행한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 십니다. (행9:36,37,40) "욥바에 다 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 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 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 라."

구제하기를 힘을 다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 쳐 그녀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 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 워함으로 베드로를 통해 생명을 소생케 하는 기적이 일어나 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 다. 구제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것이 되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는 죽은 생명도 살리는 큰 능력을 보게 합니다.

(9면으로 계속)

교회의 목적에는 예배, 교 육, 전도, 선교, 구제, 성도의 교 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여기서 바른 구제란 오늘 본문 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 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 다.

구제는 조용하게, 남이 모르 게,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무도 모르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시며 값어 주신다는 것 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밀하 게 구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만 알도록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값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의 팔복과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와 율법, 노역음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약한 자에 대한 대적에 관하여,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과 윤리에 대해 교훈하신바 있 는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성 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범 하기 쉬운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본문은 성 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위 선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 있던 극 단적 외식주의를 지적하면서 결국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 데 1-4절까지에는 구제에 대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3번째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교훈과 도전 그리 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미국의 폴(Paul)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갈려고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이 금요일 오후 저녁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런데 정말 어렵게 빈 택시 하나 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 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

시를 잡아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 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과일박스를 건드 린 지도 모르고 달려갔고, 과일 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 고 택시에 올라타고 말았습니 다. 그러나 풀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서 게 되었고 택시 안의 동료들이 "빨리 타라고 외치며 지금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칠 거 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먼 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냈고

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 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 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분명 예수님이 틀림없어요."라고 했다는 것입 니다.

### 혹시 예수님이시면 어찌지?

몇주 전부터 교회 앞길에 백 인 노숙인이 한동안 있었습니 다. 낮에는 가끔 차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새벽예배 시간 때 면 인도 길 한 가운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 습니다. 매트를 주려 시도해 보 기도 하고, 아내는 슬리퍼백을

주려 차에 싣고 다니기도 했으 나 결국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안타깝게 택시를 잡으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태워주질 않아 택시를 탈 수는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가야할 곳이 갑자기 생각이 났나? 고향? 집? 아 니면 다른 더 좋은 도시로 가려 하나? 그런데 그 일이 있는 후 얼마 뒤 이곳을 떠나 현재 보이 질 안고 있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언젠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 니다. 혹시 예수님께서서 우리 인 간들을 시험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가서 예수님을 꼭 안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라고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지도 몰라. 애 야 너 내가 누군줄 알고 이러 니? 예수님 맞죠? 애야 네 옷에 더러운 것 묻는다. 상관없어요. 애야 냄새 안나니? 네, 괜찮아 요. 애야! 숨 막혀 죽겠다 살살 좀 안아라. 절대 안 볼 거예요. 도망갈 생각 마세요. 그래 알았 어. 고맙구나. 그런데 돌아오니 제가 그 노숙인에게 한 것이라 고는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분이 예수님이셨다 면, 찢어진 누더기의 지독한 냄새나는 옷과 구멍이나 발가락 이 밖으로 나오는 신발을 신고,

## 교회의 목적III(구제)

### 마태복음 6장 2-4절

고 말씀하십시오.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으 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최 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롬12:8) "혹 위로 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 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 이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리나라 와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 지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씀하십시오. 물질과 시간 과 진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 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 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제를 결과 는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 것일 까요?

먼저는 '풍족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실하게 구제하면 더 풍족하여 진다라고 말씀하 십니다.

(잠11:24, 25) "흠어 구제하여 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 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 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 하여지리라."

구제하기를 기쁨으로 감사함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대한민국을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한반도 평화법” -타당하게 들리지만 통과 못하도록 꼭 서명운동에 참여

미국 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차세대 안전 미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2개나 발의하였습니다.

#### 두 가지 법안의 공통점 정리

두 가지 법안은 HR 3446과 HR 826으로서 두 법안들의 공통점은 법안제목들만 들으면 너무 매력적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눈물의 기도로 간절히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통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1. 위협천만한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소망을 이용한 도박과 같은 법안들:

두 가지 법안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위협천만한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 2. 대한민국, 한반도의 사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매우 교묘하게 순수한 시민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법안들:

절정 아프고 그립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는 헤어진 가족 시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염원을 사악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법안들입니다. 아무런 현실성이나 건강하며 안전한 대안책과 책임을 지는 것 없이 그들의 숨은 의도가 그대로 보여지는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은 발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특별히 HR3446은 정전(휴전상태)을 끝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 총체적으로 위협한 발의안!!

발의안 제목과 발제자들: 발의안 이름들에 절대 속지 마세요!  
△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산가족 재결합법) 4월 21일 발의. 그레이스 멩(Grace Meng,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 총 25명 민주당, 2명의 공화당 공동발의.

△HR.3446-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한반도 평화법) 5월 20일 발의. 브라드 셸먼(Brad Sherman,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들 총 21명의 민주당, 1명의 공화당 공동발의.

발의안의 문제점들(KCPAC에서 정리한 것도 공유): 먼저 HR 3446 “한반도 평화법”으로 가장한 위험한 HR3446에 대한 문제점들 요약

#### 1.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2018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남북문제전문선언’에 기초한 불합리적인 발의안/법안입니다.

북한 정권은 선언문의 단 한 개의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하고 9월에는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정전 협정의 종식은 결국 미군 철수뿐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UNC)의 존재가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또한 잠재적으로 북한 자유화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발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해체로 귀결하게 합니다.

3.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북한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내포하였습니다. 발의안의 주요 핵심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변명하는 대한민국을 지구상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조약이나 문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의해 억제되고 있습니다.

#### 3. 거짓 ‘한반도 평화법’이 제안하는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금지 해제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안전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위협되도록 부추기고 방치하는 매우 무책임한 제안입니다.

이 발의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고문에 희생된 미국 청년 오토 워비어를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의안에 동의하고 발의할 수 있을까요?  
죄 없이 북한 정권에 잡혀 강제노동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토 워비어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발의안을 제안한 미국 정치인들(99.9%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발의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거짓 ‘한반도 평화법’은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한반도 전쟁법”입니다.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독재정권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7천5백만 남북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역사의 죄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군 철수가 불러온 1975년 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피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반복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한인들은 무책임하게 한반도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고 가게 할 HR3446 발의안이 법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HR826에 대해 나눕니다

#### 1. 북한정권이 70년 이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막은 주요 장본인이라는 것.

2.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이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북한정권에 요구하는 내용이 전



혀 없음.

#### 3. 북한의 가족들이 북한정권에 의해서 76년간 탄압받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는다!

4. 북한정권이 이산가족상봉을 항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없음.

#### 5. 북한 방문 미국시민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도 없다.

(11면으로 계속)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상처가 있고 오래갑니다. 저의 상처는 수년전 남편과 이혼한 문제로 인해 생겼고 그리고 또 다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아 이 상처를 인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상처와 상처 치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요?  
-오랜지에서 K집사

A: 예, 집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이사야 61:1-4절에는 예수님은 죄 문제와 죄로 입은 인간의 상처문제를 치료하기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적환경보다 내면에서 옵니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많지만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인간 상처의 근원은 인간의 원죄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거룩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뜻을 하며 거룩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가에서 피 흘린 대속으로 인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

###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죄와 인간의 모든 상처 치유

한 인간의 상처도 치료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란 상처 난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이 지정의로 되어있는데 상처받은 부분은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지정이라는 방어기제로 적절하게 상처를 해소하고 아물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1)상처 난(Brokenhearted)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이사야 61장 1절은 말하는데 영어를 직역하면 마음이 깨어질 것을 말합니다. 상처 난 감정을 말합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이 피쳐의 공을 치기위해 배터 박스에 설 때 피쳐는 타자가 공을 치기 어렵게 커브, 강속구,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손에서 공을 들어서 던지기에 잘못 틀리게 되면 공이 간혹 타자의 몸에 맞기도 합니다. 대개 처음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하면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볼에 맞은 타자가 피쳐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2)두 번째 단계가 포로 된 마음입니다(사61:1). 폴리스가 죄지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수갑에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포로 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captive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스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말한 깊은 상처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발전된 것입니다. 이 상처는 속으로는 우울한 증세를 주고 밖으로는 화와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3)세 번째 단계가 갇힌 마음입니다(사61:1). 심각한 장애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Prisoner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복음은 죄와 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윤진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2:30 주일5부: 오후 7:00 (절미리동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매일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망우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17길 29(잠실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42-073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병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길 50-1 www.anamj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동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천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찬양의 불시착

남편과 교제하기 전에 특별히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심 혼자 생각하길 결혼 후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함께 하고 싶은 교회봉사는 있었다. 그것은 전공분야로 항상 섬기던 교육부가 아니라 성가대원으로 부부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이었다.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본 많은 믿음의 커플들 모습 중에 부부가 성가대석에 서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고 기쁨이 넘쳐보였기 때문이다. 사모가 되며 함께 성가대에 서는 소망을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음악에 굉장한 달란트를 가진 남편은 교회와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어 늘 감사하다. 그리고 목회사역을 은

퇴한 후에 혹시 우리에게 건강과 기회가 허락된다면 함께 성가대 대원으로 꼭 섬기자고 얘기하며 즐거운 소망을 함께 꿈꾼다. 전문 음악학교를 제외하고 어린 시절부터 정통 4성부의 노래와 음악을 듣고 배우고 사용하는 특별한 곳은 교회 밖에 없으며, 본인도 그렇게 교회에서 처음 음악을 배우기 시작해 성악가가 되었다는 한 교수님의 간증 인터뷰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우리 세 자매도 모두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녔었다. 엄마는 우리 자매들을 반주자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각각 세 곳의 다른 피아노 학원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렇게 배운 피아노 실력은 교회에서 쓰임 받

으며 시간이 지나 꽤 높은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 학교 여러 행사에 연주자나 합창단, 중창단의 반주자 혹은 지휘자로 활동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음악을 좀 잘하는 학생이라 인정받은 나였지만 스스로 항상 마음속에는 나만 아는 아쉬움과 괴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피아노 실력에 비해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심각한 음치나 박치기 아니라, 악보를 읽을 수 있고 음계와 음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음에 맞는 소리를 자신 있게 잘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위한 피아노연주는 점점 좋아졌지만 나의 노래 실력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반주를 하며 싱어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자신감도 점점 없어져갔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은 어떤 클럽활동도 아닌 학교 합창단에 참여하여 꾸준히 연습하고 매주 목요일 학교체플시간에 찬양하는 것이었다. 소프라노 단원이 되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트이고 고음도 잘 올라가고 어느 순간 당당하게 노래도 잘하게 되리라 상상했다. 다행히 친한 친구들 모두 합창

단 가입을 희망해서 우리는 같이 오디션 곡을 연습하고 준비했다. 비전공자들로 구성되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각종 대회 수상과 매년 정기 연주회로 크게 활동하는 합창단은 오디션 경쟁도 치열했다. 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 소프라노 오디션 곡을 지휘자 교수님 앞에서 정성껏 불렀다. 내 차례가 끝난 후 다른 친구들과 달리 지휘자님께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아주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크게 음을 이탈하거나 박자를 틀리지 않았는데,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교수님께 가니, 교수님께서서는 "송정임 학생은 다음 주에 알토 곡으로 다시 오디션을 보세요." 하셨다. "네?" 나는 너무 당황하고 속상해서 "교수님! 저는 소프라노 단원이 되고 싶은데요?" 하고 실례를 무릅쓰고 바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교수님께서서는 "학생의 음색과 성량은 소프라노가 아니고 알토에 더 맞습니다." 하셨다. 나는 창피하여 얼굴이 빨개진 채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 함께 있던 친구들과 선배들의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너무 부끄럽고, 속이 상해서 합창단 가입을 취소해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친구들이 나를 위로했고, 어차피 나도 배

우려고 결심했으니 어느 파트에 있던 열심히 하면 노래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알토 곡으로 오디션을 보고 합격했다. 그 후 4년의 대학생활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졌으며 알토파트 장으로 섬기는 귀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예배가 길어지며 성도님들은 현장예배의 분위기와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시간에 다른 교우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그리웠다고 많이 얘기하셨다. 우리교회도 90%이상 성인 성도님들의 백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 예배 중 두 곡의 찬송가를 함께 회중찬양으로 다시 부르게 되었다. 예배 중 한 순서로 매주 늘 부르던 찬송가였는데, 특별예배 등으로 예식순서가 길어지면 때로는 순서에서 빠진 회중찬양의 시간들이 이제 마스

크를 쓰고 각 2절씩으로 짧게 부르지만 그 어느 예배의 찬양보다 더 뜨겁고, 찬양소리가 크고 아름답다. 나도 다시 교회에서 회중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는데, 마음을 위로하는 가사와 아름다운 곡조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처럼 눈가를 닦으며 찬송을 부르고 계셨다. 다른 사모님들처럼 찬양에 화음을 자유자재로 넣어 화성을 풍성하게 하거나 청아한 소프라노 음색으로 성도님들께 많은 감동을 주는 사모가 되지는 못했지만 성도님들과 예배시간에 한 목소리로 찬양함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모로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혼자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제법 음악을 잘하는 두 아이들이 "엄마! 거기 또 틀리셨네요.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계신데 음이 계속 틀리시나요?" 하며 나를 또 시협에 들게 하지도 않는 나를 조금 불안하게 해도 내 찬양의 불시착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0년간 미국교회에서 일어난 6가지 주요 변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미국교회에서 일어난 6가지 주요 변화"라는 주제의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미국 사회와 교회는 상당한 도전을 겪었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팬데믹은 교회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지만 많은 변화는 팬데믹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NCS(National Congregational Study)의 자료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교회에 일어난 전국적인 6가지 변화다.

1. 교인들의 인종이 더 다양해졌다: 최소 교인의 80%가 백인인 미국교회는 1998년 71.2%이었지만 2018년 53.4%로 감소했다. 미국교회는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NCS에 따르면 이렇게 증가된 회중의 다양성은 교회 주변 커뮤니티의 다양성과 같이 한다. 1998년에는 교회의 4분의 1(25.4%)이 적어도 이웃의 5%가 히스패닉이라고 했지만 20년 뒤인 오늘날에는 59.6%로 증가했다.

2. 교인들의 학력이 높아졌다: 대학 학위를 가진 교인의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15.4%에서 30.4%로 거의 2배 증가했다. 미국 전체 인구조사에 따르면 대학 학위를 가진 미국 성인의 비율은 32.1%다. 약 10년 전에는 27.5%였다. NCS에 따르면 당시 교인이 대학 학위를 가진 비율은 20%로 미국 평균보다 낮았다.

교인들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교회가 학력이 낮은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일반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3.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덜 보수적이 됐다: 1998년에는 62%의 교회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고 했으며, 30.6%는 "중도", 7.4%는 "진보적인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한 교회는 45.8%로 떨어졌다. 정치적 중도는 39.1%, 진보는 15.1%로 두 배 증가했다.

다행인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변화했다고 신학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미국교회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말할 가능성(54.1%)이 높다. 목회자들은 1998년(76.2%)보다 오히려 현재(82.3%)가 성경이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4. 교회들이 더 도시에 몰렸다: 미국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도시 지역 교회는 1998년 41.8%에서 오늘날 59.8%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골 지역에 교회는 43.4%에서 24.7%로 감소했다. 교인들도 도시에 훨씬 더 집중되었다.

5. 교인들이 술에 더 개방적이 됐다: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 회원 자격이나

지도력에 제한을 두는 교회는 오늘날 거의 없다. 2000년대 초반에는 71.7%의 교회가 그랬지만 이제는 84.7%가 술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적당한 음주를 하는 사람이 리더십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52.6%에서 64.5%로 증가했다.

6. 교회들이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다. 1998년에는 17.1%의 교회가 웹사이트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71.6%이다. 2012년에 교회의 25.5%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72.5%로 증가했다.

영 대학, 코로나19가 종교생활에 미친 영향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이 영국인들의 종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종교생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교와 체스터대학교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교회와 모스크 및 기타 예배 장소들의 상황을 다룬 '코로나19에 따른 영국의 의식 혁신'(British Ritual Innovation under Covid-19)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604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제에 예배뿐 아니라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 종교계에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보다 덜 영적이고, 덜 의미 있고,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교인들의 수가 많은 경우 더 두드러졌는데, 연구자들은 "작은 규모의 종교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힘을 더욱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온라인 예배 참석률이 더 높아졌고 특히 장애인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 등, 많은 긍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예배와 다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즐겼고, 온라인 모임이 직접 참석할 수 없거나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끌어들이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분리라는 온라인의 특성상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멀어지거나 진정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은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

겨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 인근에 종교 공동체가 없는 이들,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신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을 통해 종교를 경험하는 추세를 가속화시켰으며, 연구원들은 이 같은 경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지만, 혼합된 형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은 온라인 전용 공동체가 가진 잠재력의 한계를 암시한다"며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된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석연구원인 조시 에델만 박사는 "이 위기 동안, 사람들은 신앙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서 의미, 안정, 공동체를 발견했다"면서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동안에도 이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큰 혜택이었다"고 했다.

에델만 박사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경험과는 다르며,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지만 얼굴을 맞대고 하는 데서 오는 공동체 의식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도전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될 때, 종교 생활을 고립시키기보다 인도적인 방식으로 넓히고 개방하는 데 유익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체스터대학교의 유대인 철학, 종교, 그리고 상상력 교수이자 이 프로젝트의 연구원인 알라나 빈센트는 "대유행병은 이미 매우 가능성이 높았던 디지털화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 디지털화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빈센트 교수는 "향후 종교 공동체의 도전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재공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좋은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고학자들, 터키 산에서 '노아방주' 추정 흔적 발견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와 일치하는 '배의 형태'를 터키의 한 산에서 발견했다. 3D 스캔 기술을 이용해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성서고고학자들이 이번 발견을 발표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앤드류 존스 박사는 "이 배의 형태가 노아의 방주와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더선'은 "고고학자 팀은 레이더를 이용해 이 장소를 조사했다"고 했다.

존스 박사는 "이 터가 단지 단단한 암석 덩어리거나 진흙 잔해들이 축적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예상에서 빗나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배가 만약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성경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배라면 여러분은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배는 길이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의 그것과 똑같다. 성경은 이 방주가 300 규빗(약 150m)라고 언급하고 있다.

CP는 산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물체를 3D 스캔을 이용해 발견한 것은 처음이기에 획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관들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이길 기대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 웹사이트는 "새로운 GPR 데이터가 '8에서 20피트 아래'의 각진 구조와 평행선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는 "표면 아래의 평행선과 직각들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형성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며 "흥미롭게도 이 배 형태는 성경에서 주어진 방주와 정확히 같은 길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보드 모양이 보여주는 층의 위치는 두루피나르라고 불리는, 터키 동부의 바위 지점 아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발견 장소에 대해 독특한 암석이 형성된 것이며 노아의 방주의 흔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 '오징어 게임' 불법게임까지 돌풍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배경으로 제작한 중국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가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아 이를 게임으로 자체 제작해 유통에 나선 것이다.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은 만큼 온라인게임도 불법으로 제작·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微博)에는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하는 온라인 게임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게임 속 캐릭터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된 캐릭터를 조정해 앞으로 움직이거나 상대와 대전을 펼치기도 한다.

중국어 자막까지 입혀진 해당 온라인게임은 불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로 '한한령'(限韓令)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정식 유통도 금지한 상태다. 이 온라인게임 역시 정식 허가 없이 제작됐 가능성이 크다. 드라마에 인기에 편승해 제작한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어도 국내 제작사나 유통사인 넷플릭스에 향하는 경제적 수익은 없는 셈이다.

현재 중국에선 게임뿐만 아니라 굿즈도 인기다. 드라마 속 제품이 주목을 받아 출연진이 입고 나온 트레이닝복을 비롯해 가면, 달고나 세트 등을 자체 제작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각종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 최신 작품들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해 접근한 뒤 중국어 번역본을 달아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웨이보의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누적 조회 수는 16억5000여건에 달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주요 불법 유통 국가인 중국, 필리핀, 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해 대응하고 있다. 넷플릭스도 별도 사설 모니터링 업체를 동원해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회에 가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는 시대를 맞았다. 과거에는 입소문을 통해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재는 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 확대시키고 있다. 자극적 표현으로 교회 내의 갈등을 알리며 교회는 절대로 갈 곳이 못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결정적인 위기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다. 모든 교회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작고 커다란 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도의 교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마다 성도의 교제를 매우 중시한다. 교회 내의 갈등을 종식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대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사항 중 성도의 교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야 한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식사를 하며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의 노력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4)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30) - 성도의 교제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스도와 연합 전제로 성도의 교제 이뤄진다는 것 확신 펜데믹 시대, 교회의 하나 됨과 성도의 교제 재점검 해야

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사회단체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다.

이처럼 교회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와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이다.

드시 각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를 마음에 모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기극한 관심거리이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절대화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소유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져 갈등을 경험해야 했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상 교회에서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의 핵심적 내용을 후대 교회가 정리한 것이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의 핵심적 내용을 후대 교회가 정리한 것이다.

회 성도들이 지녔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됨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하나 됨과 성도의 교제를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린다.

이 신앙고백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으며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하나 됨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이유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표준문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강한 전염성을 지닌 바이러스로 인해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경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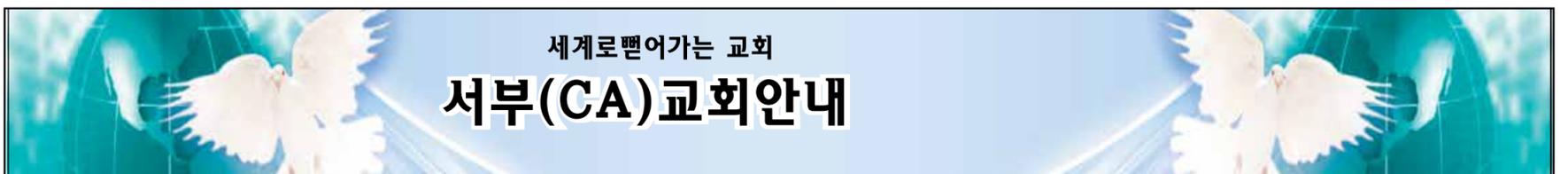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 California with their addresses, phone numbers, and service times. Include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0)



##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 자녀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 한마디

해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아버지 성품학교인 '파파스쿨'을 개최합니다. 아빠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나무성품학교 어느 유치원에서의 일입니다. 젊은 아빠들에게 '기쁨'에 대한 성품을 강의한 후 자녀에게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한 아빠가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다섯 살 난 아들에게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 그러자 갑자기 다섯 살 난 아들이 영영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에 달려간 스태프들이 무슨 일인지 물으니, 아빠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아들이 감동해서 울어버리네요"

자녀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네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말해줄 때 자녀는 기쁨의 성품을 회복합니다.

이윽고 "파파스쿨"에 온 아빠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하단다..."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놀라게도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아빠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부모님께 일찍 들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아빠의 대답은 마음 깊이 박히는 한마디였습니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자랍니다. 내 귀한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건강하도록 운동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을 기뻐하며 스스로 학문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성품은 주변 어른들에게 매일 듣는 말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념을 잡아줍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나 교사가 매일 들려주는 말이 그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고,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그들 자신을 스스로 대접하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 어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에게 어른들이 꼭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사43:4)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존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좋은 성품으로 빚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매일 "너는 참 소중한단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어야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기쁨의 탄성을 들으며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 다. 기쁨을 상실한 채 크고 작은 충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진짜 이야기를 큰소리로 외쳐줘야 합니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는 소중한단다. 너희는 우리들의 내일이요 소망이란다."

이런 기쁨의 말을 매일 듣고 자란 아이들이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진정한 기쁨을 지닌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 3. 사역의 필요성 면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사역의 필요성에서 끌어낼 수 있다.

1) 이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며 성도들의 모든 영광은 곧 주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수적인 면에서나 탁월한 면에서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목회자는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두 배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일에 자신의 전부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설교는 복음을 전파

3) 이 의무는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행복(영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이 의무는 그대의 양들뿐 아니라 그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그대가 맡은 일이며 이를 통해 그대는 심판관을 것이다.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면함과 신실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33:8). 심판 날에 그들은 자기 죄 값을 물론이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피 값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4. 이 이유들의 적용

우리가 이 일에 담대히 나서야 할 강력한 이유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제물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더러운 자로 여겨 쫓아내실 것이다.

2) 둘째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다가올 대를 대비하여 게으른 육신을 부정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몰두하도록 우리 자신을 고무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이 널리 퍼지고 성공할 때 그 기쁨은 온전한 보상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몰라도 곧 그렇지 않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보냐"(요일 3:20).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받거나 전파할 때 은혜를 받아 존경과 경외심으로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업은 영혼을 바꾸고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끼치

-반대2: 모든 교구가 다 우리 책임 하에 있는 교회는 아니며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목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닌으로 나는 그들과 이런 고통을 함께 해야만 한다는 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대답: 그대가 전체 교구를 교회로 생각하면 안하든 대부분 우리가 받는 연봉은 전체 교구를 가르치는 데 쓰라고 주는 것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과 교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책임이다. 이보다 더 강한 의무를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외에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 곧 최선을 다해 양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반대3: 이 과정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목회자가 공

## 영혼 구원에 있어서 대중설교보다 개인적 가르침이 더 효과적 인류구원, 교회의 유익, 하나님영광 추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각 죄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 대중설교는 그 자체로 충분치 않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내 경험으로 볼 때 개인적인 가르침에 비해 그다지 많은 사람을 회개 시키지도 못한다. 만약 그대가 이 개인적 방법을 도외시킨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2) 이 의무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이 의무는 우리 양들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요일 3:17).

1) 첫째로 무엇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 앞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고도 훌륭한 일을 오랫동안 소홀히 하여 왔다. 우리는 비록 오랜 세월동안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일해 왔지만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가르침과 대화를 너무 적게 해왔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요 우리 교회들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많은 장애가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마귀가 시험을 계속하는 한 또 인간의 마음속에 빛을 거부하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는 한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다름과 이기심과 나태의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 8장 특정 양들에 대한 교리 교육과 가르침의 의무에 대한 반론

-반대1: 우리는 공격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우리가 그들을 일대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대답: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공격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사적으로도 기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공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를 찾다니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을 가르쳤고 모든 사람에게 훈계를 하였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 가르침을 한 시간만 받고도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기도 한다.

부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젊고 경험이 부족하므로 우리 능력을 개선시키고 지식을 증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런 일을 완전히 막을 것이다.

-대답: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용용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미 기독교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의 큰 목적인 이 일은 우리가 행해야 한다.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기를 힘쓰라, 실사 그대가 광범위한 지식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이 일은 부지런히 실행하면 깊이 있고 훨씬 탁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을 직접 구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대 더 공부를 하겠다면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부수적 지식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무는 다 행해져야 한다.

hyjungyoo2@yahoo.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b>			<b>뉴욕셋새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공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b>베이스айд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b>어린이 개혁 교회</b> 담임목사: 유승래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30분) 주일 2부 오후 1:50(30분) 주일학교 오후 1:50(30분) 청년예배 오후 3:10(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b>			<b>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초기도회: 매일 새벽 7시, 7:15 공요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후 7:3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9: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b>토론토 가든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예수의 행복론(6)-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철학자들은 정신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는 일반적인 현상은 물질 추구나 권력 추구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다. 그래서 당시 로마사회는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였고 육체적 쾌락과 탐욕을 즐기는 타락한 사회였다.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사회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예수님은 행복을 논하실 때 항상 하나님으로 귀결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하셨는데,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는데 위로해주

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는데,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하셨는데, 갈급함을 적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약의 복들을 보면 상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들은 다분히 물질적인 복을 보여준다. 비기독교적인 철학자나 사상가들도 물질의 해악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고고한 기독교의 진리가 저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현세적인 복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뒤 구절들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

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현세적인 복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순종과 축복의 원리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순종과 축복의 연장선 끝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물질적인 복은 현세적인 복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평강과 안전을 추구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지만, 이 세상의 축복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영화 "God loves all children"이라는 영화가 있다. 엄마와 딸이 어느 날 홀리스가 되었다. 이 모녀는 먹을 음식도 실만한 집도 없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오직 어머니만 있으면 행복하다. 노숙을 하여도 굶어도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임을 알면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어도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dik0184@yahoo.com



제 6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설교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설교우수상 베데스다대 김미경 전도사

제 6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설교페스티벌

제 6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설교페스티벌이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헨리안펜젤러신학대학교(총장 정인호 박사) 주관으로 2일 오전 10시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설교페스티벌의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교회 회복과 부흥'이며 선택본문은 대하7:14, 겔 37:4-8, 삼상7:5-6, 함3:2, 행1:8, 9:31, 엡6:12-18, 롬 12:1-2 이었으며 참가대상 학교는 ATS, TRACS, ABHE에 정회원으로 인준된 학교들이

었다. 심사는 각 신학교 지도교수들과 미주성서화 추천 1인, 그리고 각 학교에서 2명씩 선발된 청중평가단이었다. 이날 페스티벌의 영예의 설교우수상은 김미경 전도사(베데스다대학교), 설교모범상은 이승준 전도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차지했다. 김미경 전도사는 "설교우수상을 받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

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평을 맡은 김병학 목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설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드러나야 한다"며 "각 학교의 신학적 차이가 있기에 설교평가에 신학적인 비중은 낮았으며 목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중점으로 봤는데 참가자들이 이점을 잘 준비했다. 특별히 주제에 맞게 팬데믹시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려준 설교들이었다"고 말했다.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설교 우수상 (장학금 \$1,500): 김미경(베데스다대학교) △ 설교모범상 (장학금 \$1,200): 이승준(그레이스미션대학교) △ 설교주해상 (장학금 \$1,000): 홍현설(미주장신대학교) △ 설교전달상 (장학금 \$800): 임원숙(월드미션대학교) △ 설교비전상 (장학금 \$500): 공일환(미성대학교) △ 설교발전상 (장학금 \$500): 조배근(국제개혁대학교) △ 설교부흥상 (장학금 \$500): 한준희(에반젤리시대학교) △ 설교은혜상 (장학금 \$500): 최영준(헨리안펜젤러신학대학교).



고 김경일 목사 천국환송예배에서 고인의 장남 김요셉 강도사가 조사를 하고 있다

본지 "청교도신앙의 회복과 부흥" 연재 필자

고 김경일 목사 천국환송예배

고 김경일 목사(남가주 행복찬교회 담임/KWMC,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 천국환송예배가 4일 오후 5시 한국장외에서 열렸다. 박경일 목사(예수커뮤니티교회) 집례로 열린 이날 예배는 최순길 목사(남가주 총신동문회 증경회장)가 기도했으며 고석희 목사(KWMC 상임의장)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요 11:25-26/계 7:9-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총신남성중창단이 조가를 불렀으며 김요셉 강도사(장남),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조사를 했으며 김요셉 강도사가 유족대표 인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축도했다. 김요셉 강도사는 "아버지는 믿음의 선배이자 친한 친구였다"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한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그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다니시다가 쉬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고

평안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고 김경일牧사는 1960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1987년 부인 이윤희 여사와 결혼,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1991년 한국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84회, M.Div)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 소재 그레이스신학교에서 신교학박사학위(D.Miss)를 취득했다. 1992년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92년부터 2005년까지 GMS 우즈베키스탄 주재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KWMF 중앙아시아 회장(8년), 사무차장, 2005년부터 19년까지 KAPC 카자흐스탄 선교사(6년), 2016년 KWMF 제14차 야주사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준비위원장 및 KWMC 제8차 야주사 한인세계선교대회 본부장, 2016-17년 남가주 다민족연합기도회 및 종교개혁 500주년 사무총장으로 사역했으며 최근까지 예수서원 총무,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 남가주행복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고인은 지난 9월 21일 오후 6시40분 교인심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들어갔으며 1주일 후인 9월 29일 저녁 9시4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서 "청교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기반으로 본 지에 연재한 바 있다(2020년 5월-12월). 유족으로는 부인 이윤희 사모, 장녀 김한별, 장남 김요셉, 차남 김광능이 있다. (박준호 기자)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힘을 다해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를 외면하고 모른 채하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있는 것으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제할 때 풍족하여 지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값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칭찬과 보상을 해 주시며, 구제를 진정으로 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은밀하게 구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pspcnyc@gmail.com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 교회', '몽고메리교회', etc.,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details.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교협 제 48회 정기총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제 48회 정기총회가 10월 14일(목)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사전등록은 10월 8일(금)까지 해야 하며 △사전등록 총대 2명: 목사대표 1인, 평신도대표 1인 △사전등록 방법: ①Homepage www.nyckcg.org, ②Email: nyckcg@gmail.com ③ 문자: 347-638-4596, ④사무실 방문 접수. 위임장은 담임목사에 한해 사전등록 기간에만 인정된다. 년 회비는 120달러이며 online으로 등록할 경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최근 3년(46,47,48회기) 회비가 납부돼야 완료된다.

▲문의: (718)279-1414

## 20회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시카고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준원 목사)가 진행하는 20회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미주 거주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전공 재학생이거나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대학원생은 최소 8학점 이수, 대학생은 15학점 이수, GPA B+ 이상. 제출서류는 신청서(www.newlife-chicago.org), 신앙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500자 이하), 추천서 2부(담임 목사 혹은 지도교수), 성적증명서. 선발인원은 15명에 각 1500달러씩 지원하며 마감일은 10월 31일, 12월 12일 본 교회 웹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수여식은 12월 16일.

▲문의: (847)359-5200

## 퀸즈장로교회 가을 건축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을 건축바자회가 10월 16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교회주차장과 지하 친교실에서 열리는 이번 바자회 품목은 음식에 한한다. 각종 김치와 새우젓, 고추장, 된장, 다시마, 미역, 멸치와 잡채, 호박죽, 진미채, 고기만두 및 점심 식사메뉴가 준비된다. 김치류, 젓갈, 장 종류 등은 주중에도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문의: (718)886-4040

## 뉴욕효신장로교회 제3대 이경섭 담임목사 결정

### 제작 97% 찬성...1년간 공동목회 후 문석호 목사 퇴임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9월 26일 주일 1-3부 예배 후 열린 제 3대 담임 목사



이경섭 목사

문석호 목사가 이임하고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경섭 목사는 동사목사로 지난해 7월 한국에서 부임했다. 총신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다시 총신대 신대원에서 목회상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목사는 2002년 안양에서 하늘의빛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 뉴욕에 왔다.

현재, 이경섭 목사는 도서출판 알투엠(AL2M) 대표이며 성경적감정코치연구소(가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교육아카데미에서 "성경적 감정코칭"을 강의했으며 "성막과 치유", "아바 아버지", "감정의 은신처", "관계와 사귀" 등 저서를 낸 바 있다.

(유원정 기자)

##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구제...은밀하게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9월 월례회가 19일 뉴욕안디옥침례교회(담임 한필상 목사)에서 열렸다. 월례회는 1부 기도회와 2부 회의로 진행됐다.

기도회는 이종명 목사 인도로 기도 한준희 목사, 말씀 임병남 목사, 합심기도 육민호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임병남 목사는 "부족한 것은 없는가?"(막10:17-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구호는 그리스도인만의 독점이지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것이며 UN 산하에도 NGO도 구호단체가 많다. 기아 대책의 구별점은 구제가 신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불쌍히(민망히) 여기사 불구자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풀었다. 구호는 내적 믿음의 외적 표현이며 긍휼은 신앙의 덕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선교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은 빵과 복음, 구호를 통해 선교하는 단체다. 그런데 딜렘마는 빵으로는 복음이 낡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한다. 우리의 구제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시

야 전도가 된다"며,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은밀하게 하라'(마6:2)는 것이다. 기아대책의 구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필리피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종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제 목적으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회장 유상열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회장인사, 사역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단독 부회장 후보 낙선...선관위, 뒤늦게 '투표무효'

### 뉴저지교협 제38회 정기총회, 새 회장 고한승 목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 38회 정기총회가 9월 30일 저녁 7시 뉴저지연교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고한승 목사를 선출했다.

부회장은 단독후보 육민호 목사가 선출되지 못해 새 회기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선출해야 한다.

2부 총회에서 회장 이정환 목사 사회로 진행된 임원선거는 부회장 고한승 목사를 박수로 추대해 회장에 올랐다.

고한승 신임회장은 "팬데믹이 끝나는 2022년을 기대하며 교회들의 '회복과 연합'을 주제로 삼아 교회를 세워가고 영적 시너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 선거는 육민호 목사(



제47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4항(은퇴증경회장 관련)만 1년 더 연구

### 제47회기 뉴욕교협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

제 47회기 뉴욕교협이 9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제 2장 회원 제7조(권리) 4항만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4항은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이다.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59명(목사 52명, 평신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축조하는 가운데 4항을 제외한 모든 개정안은 통과하기로 결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혁신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가 초안하고 법규위원회(위원장대행 김원기 목사)의 승인을 받아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돼 임시총회에 올려졌다.

문석호 목사 사회로 진행된



뉴저지교협 제38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수원교회)가 단독 임후보였으나 '법대로 하자'는 양혜진 목사(기록서기)의 의견에 무기로 삼아 교회를 세워가고 영적 시너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 선거는 육민호 목사(

회의 및 선거 제 16조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투표자로 한다"로 돼 있다. 그러나 과반수 투표자는 "경선일 경우"라는 회칙위원장(이의철 목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마무리됐다.

그러나 총회 말미에 장동신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잘못"이라며 "투표자 중 3명이 회비 미납으로 선거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고한승 회장은 이후 회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총회를 끝냈다.

임원교체 후 진행된 신안건 토의에서는 34회기가 진행한 건축위원회(위원장 이준섭 장

로)의 재구성에 대한 안건을 1년 유보시켰다. 교협건물 구입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오던 것

총회에서 혁신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개정안 입법의 목적을 "반기독교 정서가 깊은 시대 속에서 교협의 존재 이유와 이런 변화에 어떻게 교협이 반응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두었다"며 "본 개정안은 극히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회 명칭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로 △제 3조(목적)...1)진리를 수호하고(갈 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 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삽입 △회원자격: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가입서류: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징계 및 교회 분할과 통폐합 삽입 △상벌위원회 삭제 징벌위원회 삽입 △회계보고는 외부 회계사에게 △감사는 재무행정을 감사한다.

한편 회의 서두에 김용걸 신부(증경회장)는 4항이 잘못됐다고 길게 설명했으며 이병홍 목사(증경회장)는 "어른공경의 미덕을 발휘해서 증경회장단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1부 예배는 총무 한기철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철 목사(감사), 말씀 정순원 목사(증경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2-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전파였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령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 목자는 reformed pastor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릎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 바울처럼 복음증거를 이어나가는 뉴욕 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으로 현재 36,679달러가 CD로 보관돼 있다.

이날 회계보고는 총수입 53,904.10달러, 총지출 51,352.40달러, 잔액 551.70달러로 보고됐다.

신임회원으로 뉴저지사명교회 강신균 목사와 뉴저지성결교회 김경수 목사를 인준했다.

또 이준섭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한승 목사 인도로 기도 육귀철 장로(부회장), 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설교 윤명호 목사(전 회장, 31회기), 봉헌기도 최재형 목사(사무서기), 축도 김정문 목사(전 회장, 12회기) 순서로 진행됐다.

윤명호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눅17: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1년 회기를 잘 마친 34회기에 감사한다. 다음 회기는 백신점점으로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남을 돕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다. '서로 섬겨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나라를 세울 것인가? 각자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라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회비납부"를 강조했다.

삼 목사는 "34회기가 표어로 삼은 '섬김'과 '하나님'은 교협이 나아가갈 방향"이라며 "내 교회 부흥이 아니라 뉴저지 전역의 지역교회 부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48회기 정부회장 후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문석호 회장, 박태규 후보, 김명옥 후보, 이준성 후보, 김희복 후보, 이만호 선관위원장.

## 교계 화합, 차세대 세우기 공동공약

### 뉴욕교협 제48회기 정부회장 후보 기자회견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8회기 정부회장 후보 기자회견이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뉴욕교협 회관에서 열렸다.

회장 후보에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 부회장 후보에 이만호 목사(뉴욕양무리교회), 2번 김명옥 목사(예새침장로교회)로 김희복 목사는 현 부회장으로 단독 임후보였으며 부회장은 3과전이 됐다.

기자회견은 선관위원장 이만호 목사 사회로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문 목사는 후보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만호 목사는 임후보 공고가 늦어진 것에 사과하며 "할렐루야대회가 9월(11, 12일)에 열리고 총회(10월14일)가 빨라진 것이 이유가 됐다. 그러나 후보들이 준비를 잘 해서 마감 시간을 지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먼저 후보자들이 조건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41/44회기 총무, 43/46회기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역임) 자신의 신앙 경력을 소개하며 △동포사회의 영혼구원과 성령운동이 일어나도록 △즐겁고 신나는 교협으로 화합과 화목에 노력 △차세대와 소통하며 비전 심어주기 △다민족 집회를 개최 등을 피력했다. 또 회장이 되면 이취임식 후 40일 기도회를 하며 미스바 회개운동 새해 금식성회, 선교대회, 체육대회, 할렐루야 대회 등으로 교협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성 목사(현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특별사무원)는 회장을 잘 보좌하며 한마음

으로 달려가는 교협이 되도록 화합과 연합에 치중하고 △교협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며 △변화에 대비하고 △청소년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옥 목사는(36/37회기 감사, 41회기 부활절준비위원장)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교회 간의 유적 연합으로 교회 본질을 찾고 바르게 개혁되도록 △영성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세대적 문제로 임기 2년을 제안했다.

박태규 목사는(현 특별사무원, 31,32, 37-40 분과위원장) △팬데믹으로 약해진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교회의 본질인 전도운동 △청소년 센터 중심의 1.5세 활성화와 차세대 교회부흥 △여객동무 사역으로 교협후원금 5만 달러 기증 등을 언급했다.

이어 미리 제출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에게 서약서 사인을 받았다. 서약서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공공적도임의 행사순서를 맡을 수 없으며 △6인 이상 모임 식사대접 금지 △출마포기 중용하며 금품주는 행위 금지 △허위사실, 유언비어, 비방 금지 △후원금 찬조금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교협회비 대납 금지, 자기 성도가 아닌 사람을 평신도 총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위반 사실이 있을 시에는 증인 2인 이상과 확실한 증거를 총회이후 "1달내"에 선관위에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언론회견이나 법원제소를 금지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선포기 사역 선교비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선교헌금 50%와 나머지 5만 달러 후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선포기 사역 선교비 전달식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 용수산 식당에서 선포기 사역 선교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성우 목사 진행으로 열린 이날 전달식은 백은학 장로(LA 홀리클럽 회장) 대표기도, 송정명 목사가 환영인사와 말씀을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지난 4월 홍콩에 있는 원유관 대표가 날개 없는 선포기를 선물하고 전도용으로 보냈다. 그래서 성시화 주관으로 ‘날개 없는 선포기’ 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왔다”며 “각 교회마다 한 대당 10달러에 부탁, 모금된 선교헌금 50%와 나머지 5만 달러를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재권 장로(이사장 권한대행)이 선포기사역 종합보고했다.

김 장로는 선포기 사역 종합 보고를 통해 “날개 없는 선포기는 한 대당 199달러(캐나다), 미국 150달러(미국)에 판매되는 가격이지만 홍콩에 거주하는 원유관 사장님이 선교차원에서 다섯 컨테이너 박스를 무료 후원해 주셨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해 지난 3개월 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교회와 각 단체 및 기관에서 한 대당 10달러씩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해서 선교 후원비로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김진옥 선교사,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인도 안강희 선교사, 무디고 목사(아버지 밤상교회), 빅토리아 홍(푸른초장의집), 원성택 목사(Mom선교회)가 선교와 사역 보고를 하고 이어 박희민 목사(미주 명예회장)와 최문한 장로(이사장)가 기증자 원유관 사장을 대신해 원성택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LA 총영사관 손성수 경제영사는 “내년이 흑인폭동 30주년 해”라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선포기 300대를 한·흑간 갈등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흑인가정에 나눠주자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선포기가 날개가 없어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전혀 없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너무 기뻐했다”며 “이런 귀한 행사를 마련한 주관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은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 명예회장) 감사기도를 끝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우리 죄악을 용서하소서’ ...

#### 2021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설명회 가져

2021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가 10월 29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 자마,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은혜한인교회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를 위한 설명회가 9월 30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기도대회는 1부 예배, 2부 기도회로 열린다. 기도회는 강순영 목사 진행으로 열리며 ‘우리 죄악을 용서하소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소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민족 세계를 위해’ 등의 제목으로 진행된다.

강태광 목사(사무총장) 진행으로 열린 설명회는 강순영 목사가 참석자 소개, 한기홍 목사가 환영인사 및 취지를 전하고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성규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말씀을 전한 한기홍 목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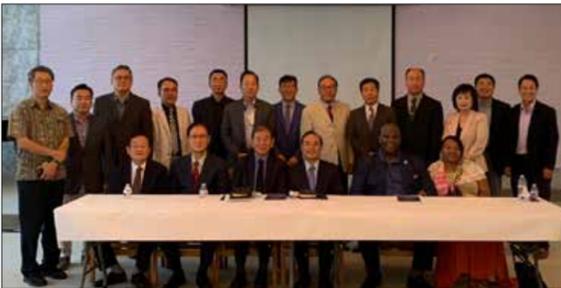
회 고문)는 사도행전 13장 21절-22절을 본문으로 한 말씀에서 “2011년 성시화와 함께 다민족구국기도대회를 시작한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귀한 행사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레데리키 목사와 박성규 목사(공동 대회장)가 격려사를 하고, 강순영 목사가 행사 진행 사항 설명, 박세현 목사가 기사 자료를 설명하고 이성우 목사(공동 준비위원장)가 준비 일정에 대한 설명한 뒤 안신기 목사(실행 위원)가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합심기도는 김영구 목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축복하소서’, 박종술 목사가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박형준 목사가 ‘다민족 기도대회를 축복하소서’ 등의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창호 목사 기도회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21 다민족연합 기도대회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나성한인교회 2021 가을 말씀부흥회에서 노진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오직 그리스도’ ...강사 노진준 목사

#### 나성한인교회 2021 가을 말씀부흥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 2021 가을 말씀부흥회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노진준 목사(전 한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이찬양팀 찬양인도와 신동철 목사 사회로 열린 26일 오전 11시 예배는 임선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림’(마6:31-34)이라는 제목으로 노진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노진준 목사는 “간증의 위형성은 일반화이다. 둘째 이원성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떠오른다. 교회 밖의 일은 세속적이라 하며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다. 목사만 성직자인가? 성직의 유무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삶의 현실에서 걱정은 책임감에서 비롯되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도 한다. 생각은 염려를 낳는다. 주님의 관심은 염려라는 행위가 아닌 의식의 관점이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염려 또한 주의 손에 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먹고사는 문제가 내 소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신 것을 붙들고 먹고사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노진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아는게 힘이다...

(5면에서 계속)

6. 미국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자본과 물자가 북한정권에 의해 약용되고 있는 것을 막을 대안이 제시되지 않음.

7. 법안은 미국시민이 된 북한 탈북민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안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음.

더 이상 순진하게 보이는 것만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미국과 한국

## 서부교계 게시판

### 홀러튼장로교회 방과후학교

홀러튼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선교 사역으로 방과 후 학교(After School)를 제1교육관(1818 West Ave. Fullerton)에서 오는 18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오픈한다. 20년의 오랜 경험과 전문교사로 구성된 어너스 아카데미(Honors Academy)는 중,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어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MS, HS 성적(GPA) 관리 △각종 시험 준비: MS(SSAT, ISEE 등), HS(AP, IB, SAT, ACT 등) △대학원서 준비(Common & Supp. App. ESSAY, College Selection) △유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이 있다. 어너스 아카데미 특징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 연계 학습, 평가, 관리와 학생 개개인에 맞춘 스케줄과 지도 및 통계와 평가를 통한 개별 학습지도가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금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714)853-1414

### 담임목사 청빙

남가주 옐로스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한빛교회가 제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한빛교회는 미주성결교단에 소속 설립 34주년 되는 교회로 본 교회를 개척한 차광일 목사의 조기 은퇴로 제2대 담임목사를 찾고 있다. △자격 요건은 1. 서울신학대학 출신 혹은 동등한 신학대학 출신으로 본 교단 안수 후 미주성결교회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타 교단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 2. 이민 목회경력 5년 이상(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중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한영) △제출서류는 1. 영문 및 한글 이력서 각 1부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사진 포함), 3. 신앙고백서 4. 목회계획서(목회비전, 목회철학 포함) 5. 학위증 사본(대학교, 신학대학원) 6.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7. 추천서 2부(추천인의 이메일 주소 기재) 8. 최근 3개월 내 실고 영상 또는 링크(영상을 USB로). △제출처는 1. 수신자: The Light Evangelical Church(한빛성결교회) 창립위원회(7941 Page St Buena Park CA 90621, USA) 2. 이메일: Silverjkle@gmail.com(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마감일은 오는 12월 31일.

▲문의: Silverjkle@gmail.com



유니온교회 창립41주년 기념주일에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 유니온교회 설립41주년 감사예배, 설교 김종률 목사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설립 41주년 감사예배가 9월 26일 주일예배시간에 가졌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백문철 원로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종률 목사(디사이플교회/남서부지방회장)가 ‘건강한 교회’(살후 3:13-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률 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교회다. 즉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는데 멈춤이 없고 낙심이 없는 교회”라며 “오늘도 멈춤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낙심하지 않으려

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운데 있어야 한다”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원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때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할 때이며 이러한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영 장로의 원로장으로 추대식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김종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 큰빛교회 설립 22주년 감사예배

큰빛교회(담임 조현영 목사) 설립 22주년 예배가 3일 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조현영 목사는 “22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영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찬양대 찬양에 이어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오니’(시26:6-12)라는 제목으로 조현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조현영 목사는 “본문의 손을 씻는 것은 죄악을 씻어버렸다는 의미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 천국백성 되는 일을 위해 달려

왔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교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22년 동안 우리교회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큰빛교회 성도들은 세상 환란 풍파 등을 믿음으로 넘겨 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 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조현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큰빛교회는 토론도 순복음성교회 담임 김석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치유집회를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선한청지기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및 임직식에서 임직자와 배우자가 선포하고 있다

### 이상준, 장석준, 조규완 장로임직

#### 선한청지기교회 설립30주년 감사주일 및 임직식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설립 30주년 감사 및 임직식이 3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송병주 목사는 “지난 30년간 교회를 위해 함께한 분들의 헌신해온 모습 주님께서 고마워하실 것”이라며 “팬데믹 때 많은 것이 멈춰졌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움직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 꿈틀거렸다. 다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선한청지기교회가 앞으로 30년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한결같은 항상 새로운 교회, 늘 새로운 추구하고 있으나 살아있는 전통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주 목사 사회와 찬양팀 찬양인도로 오전 11시30분에 시작된 이날 예배는 한경환 장로가 기도했으며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했다. 송광물 설립 목사의 영상축사메시지가 소개됐으며 은퇴장로와 시무장로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로임직식이 있었다. 임직자 서약과 교인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임직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임직자 이상준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부르심 따라 섬길 때 사람의 생각으로 특별한 의미를 만들기도 목목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준 장로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일을 잘하기보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자 되겠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경험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마음 합하여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규완 장로는 “가정과 일 교회일로 쉽지 않은 길 걸어가 때 하나님 섬리리 생각하며 걸어가겠다. 지금까지 앞으로 함께 같이 갈 가족에게 고맙고 성도들에게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송병주 목사는 ‘아빠, 아버지와 아들’(롬8:12-17)라는 제목으로 말씀에서 “30주년 된 우리교회는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아들딸이 돼서 아빠 되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며 “선한청지기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를 찾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합심기도 후 송병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2021 교단 총회 결산(상)> 단축 총회가 남긴 아쉬움

코로나19는 평범했던 일상을 뒤바꿨다. 교단들이 매년 한 차례 여는 정기총회도 감염병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총회와 '하루 총회'를 진행하며 고군분투하는 교단들이 떠안은 과제는 뭘까. 교단들의 고충과 풀어야 할 문제들, 재난을 통해 개선될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하루 총회' 맞춰 내실 높였지만...안건 심의 물리적 한계도

9월에 총회를 진행한 주요 교단 대다수가 2년째 1일 총회로 회무를 끝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합신(총회장 김원광 목사) 총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박문수 목사) 등은 예년에 3-4일 동안 열던 총회를 하루 만에 마치면서 원활한 회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내실 있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0...예장합동은 지난 13일 울산 우정·대암·태화 등 3개 교회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개회는 오후 2시, 폐회는 오후 8시였다. 저녁 식사도 생략하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개회 예배와 임원 선거만 3시간 넘게 소요됐고, 안건 토의는 3시간도 채 하지 못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논의 중단, 목회자

정년 연장 기각 등 꼭 필요한 안건만 논의해 결의했다. 각 노회가 총회 현장에서 다뤄 달라고 올린 현의안은 모두 311개였다. 이은철 예장합동 사무총장은 29일 "짧은 시간 안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정치부가 먼저 회의를 열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모든 현의안을 다룰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다행히 예민한 안건들은 회기 중에 공청회를 열어 총대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모두 방역에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었다. 총회가 열린 지 20여일 지났는데, 총대 중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0...예장합신도 지난 14일 경기도 상동21세기교회에서 1일 총회를 열었다. 전체 총대가 모여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안과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는 안이 검토되다가 최종적으로 총회 현장에는 총회 임원과 각 노회를 대표하는 3인 등 주요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나머지 총대들은 각 노회가 별도로 마련한 장소에 분산해 참석했다. 하루짜리 총회로 진행됨에 따라 이날 총회에 상징된 13개 현의안은 미처 다루지 못했다.

0...기침은 지난 16일 전국 24개 구역에서 제111차 정기총회를 분산 개최했다. 지난해

하고 적지 않은 안건을 처리했다. 교단 내부에서는 "짧았지만 내실 있었던 총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짧은 회무 시간으로 각부·위원회 회의를 정기총회 기간 중 하지 못했다. 정기총회 기간 중 열리는 각부·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선과 주요 안건 심의 등을 한다.

0...예장합동은 지난 13일 열린 제44회 총회에 50% 감축된 총대(541명) 중 459명이 참석했다. 7시간 만에 총회를 마쳤지만, 총회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소개하고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내실 있게 회무를 처리했다. 김종명 예장백석 사무총장은 "코로나 여파로 총회 일정이 크게 단축된 것은 아쉽지만 짧은 기간만큼 회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총대들 사이에 정착된 것 같다"면서 "과거에 비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대폭 줄어든 것은 맞다"고 말했다.

0...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헌법 개정 및 관련 규칙·규정 제정과 개정 등 처리해야 할 대부분의 안건을 다뤘다.

## <2021 교단 총회 결산(중)> 산적한 안건 어떻게 다루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다수 교단이 하루 일정의 '1일 총회'를 열었다. 짧은 회무 시간 탓에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교단들은 새 회기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등에 남은 안건을 위임했다. 임원, 실행위원 등 소수 인원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부담도 크기 때문에, 한 회기 동안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총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 코로나 장기화, 2년째 너무 짧았던 '하루 총회' 임원회·실행위에 남은 안건 위임...총대들 관심 필요

0...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총회 총대들은 지난 13일 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성을 위한 통합기구 설치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목회자 정년, 교역자 이중직, 총대구성, 1만 교회 파송 운동, 노회 간 불화 시 화해중재원 신설 등과 관련된 헌법과 규칙 개정의 연구 검토를 추후 구성될 위원회에 맡겼다. 결정 사항은 오는 2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며,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된다.

김종명 예장백석 사무총장은 30일 "과거엔 총대들이 총회 때 한자리에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소통하고 합의·도출의 과정을 거쳤다. 교단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힘이 실린 셈"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선 총회 임원과 각 노회장, 위원장, 상비국장 등이 참석하는 실행위원회에 권한이 쏠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행위원회는 총대를 대신해서 위임받은 안건을 처

리해야 하므로 책임이 훨씬 커졌다"면서 "총대들은 실행위원회가 바른 결정을 하고 안건을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0...예장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총회를 6시간 만에 끝냈다. 빠듯한 일정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안건은 임원회에 맡겼다. 총회 총무와 사무총장 간 업무 분담 건, 전국교회 기도운동 진행 건, 총회 선거 규정 개정 건, 총회 상담센터 개설 건 등이 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다.

예장합동 임원회는 매달 두 차례 정기적으로 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임원회에서는 총무와 사무총장 간 업무 분담 건을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이 총무의 지시를 받는 구조다.

허은 예장합동 서기는 "수입하기 위해 임원회가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원들끼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예장합신(총회장 김원광 목사) 역시 지난 14일 1일 총회를 진행함에 따라 13개 현의안을 모두 총회 정치부로 넘겼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와 교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목회자 부양위원회' 설치 등이 현의안으로 올라왔지만 다루지 못했다. 정치부는 1일 회의를 열고 현의안 및 긴급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회지리협력위원회(위원장 김원광 목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 성격의 총회지리협력위원회는 총회 폐회 후 총회가 다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조직이다. 전·현직 총회장과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혼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전자투표인 스마트보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올해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상징된 11건의 안건 중 교역자복지회와 은혜재단 통합 건이 부결된 것만 제외하면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빠듯한 일정 탓에 임원 선출은 새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했다.

김일업 기침 총무는 "의정단 선거를 통해 총회장, 부총회장 등을 뽑으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단 선거, 안건 처리에 임원 선출까지 하루 안에 모든 걸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0...예장백석은 지난 13일 열린 제44회 총회에 50% 감축된 총대(541명) 중 459명이 참석했다. 7시간 만에 총회를 마쳤지만, 총회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소개하고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내실 있게 회무를 처리했다.

김종명 예장백석 사무총장은 "코로나 여파로 총회 일정이 크게 단축된 것은 아쉽지만 짧은 기간만큼 회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총대들 사이에 정착된 것 같다"면서 "과거에 비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대폭 줄어든 것은 맞다"고 말했다.

0...예장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헌법 개정 및 관련 규칙·규정 제정과 개정 등 처리해야 할 대부분의 안건을 다뤘다.

총회에서는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개정했고 유아세례 나이를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변경하면서 교인 구분에 '아동 세례교인'을 신설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된 헌법은 10월 중 열리는 전국 69개 노회의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총회장이 공포해야 시행된다.

예장통합은 또 각부·위원회 회의를 정기총회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정치부 신학교육부 교육자위원 재판관 고시위원회의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상임부서와 위원회는 총회를 유지하는 골격과도 같다.

각부·위원회 회의는 6-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임원을 인선하고 한 회기 주요 사업을 점검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임원회는 13-15일 임원회를 소집해 한 회기의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회 개최 방법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올해 기침 총회는 정기총회 40일을 앞두고 오프라인 정기총회를 공고했다가 4차 대유행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온라인 비대면 총회로 변경했다.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인 스마트보트도 도입해 의정단 선거는 물론 의사결정에도 사용했다. 무엇보다 1일 총회에서 스마트보트가 감정을 발휘했다. 안건 처리, 의정단 선거 등을 모두 진행했지만, 스마트보트 덕에 상징된 12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선거도 완료했다.

0...예장고신 총회(총회장 강학근 목사)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보트 시스템으로 임원 선거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원 선거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회계, 서기 등을 뽑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어 교류금지" 결의

### 예장고신총회 1년 유보 결정...전 목사 공개적 조사제안 무응답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에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강학근 서문로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경선을 벌였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권오현 서울시민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예장고신은 28일 경남 김해 김해중앙교회에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적용됨에 따라 23년 만에 기존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떠나 경남 지역에서 열렸다.

2박3일 일정 첫날인 이날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강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강 목사는 참여한 총회 대의원(총대) 531명 중 513명의 표를 얻었다. 강 목사는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과거 선배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회복받고, 그렇게 다시 전진하는 고신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295표를 얻은 권 목사가 이름을 올렸다. 권 목사와 함께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했던 김홍석 안양일심교회 목사는 228표를 획득했다.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출마한 김재원 전주동부교회 장로가 491

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서기 선거에선 후보자들이 동표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희종 우호교회 목사와 소재운 대구샘물교회 목사가 각각 211표를 얻은 가운데 선거조례에 따라 임직연수가 앞선 소 목사가 부서기에 당선됐다. 부회계에는 김승렬 울산햇빛교회 장로가 뽑혔고, 지난 회기를 끝으로 임기를 다한 이영한 사무총장은 총대들의 신임으로 3년 더 연임됐다.

예장고신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총회 때 전 목사의 이단 옹호자 규정을 다음 회기로 1년 유보한 바 있다. 전 목사 측 교단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의를 유보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4차례에 걸쳐 전 목사와 전 목사 소속 교단에 공개적인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위는 이런 설명을 곁들여 이번 총회 때도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옹호자 규정이 가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두고 일부 총대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총대들의 동의로 해당 보고서는 받아들여졌다.

## 이단 '하나님의교회' 건물건축 불허하자...

### 시민단체가 하남시 비방광고...하나님의교회 "광고내적 없다"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연일 비방 광고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단체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옛 안상홍증인회·총회장 김홍철) 유관 단체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하남시가 "공공복리 증진에 어긋난다"며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해당 광고를 낸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김상호 하남시장 위법행위 중단하고 공정행정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하남시가 불법 논란과 특혜 의혹이 있는 노인요양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종교시설 건축은 불허하는 등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게 광고 골자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하나님의교회 건물 건축에 대한 민원 규정은 노인요양원과 달랐다. 건축 반대 민원이 1만1000여건에 달해 주변 주민 모두가 반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했다"면서 "또 부지가 아이들 통학로에 있어 건축 허가가 나면 공공복리를 현격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1일 시청 홈페이지에 '특정 종교시설 건축 불허 비방광고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노인요양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민원도 원만히 해결돼 문제가 없다"는 글을 싣기도 했다.

시는 해당 단체 명의로 접수된 민원이 없는 데다 하나님의교회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해당 광고가 하나님의교회나 그와 관련된 단체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이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시는 실제를 알 수 없는 해당 단체의 시정 신뢰회생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다.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서려던 지역 주민들이 모인 김일지구총연합회도 하남시 결정을 지지했

다. 최윤희 김일지구총연합회장은 "해당 용지 15m 내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있는 만큼 학생들을 상대로 포섭 활동을 벌일 우려가 커 입주민으로서 반대한다"며 "시는 소속도 불분명한 광고에 위촉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동환 목사) 등 지역 교계도 지난달 8일 성명을 내고 "하남시 교계도 시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단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하남시를 응원했다.

이단 전문가 탁지원 현대종교소장은 "하나님의교회의 경우 신자들의 헌금으로 기성교회나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해 현지 주민을 미혹한다"며 "많은 이단이 이번 사례처럼 시정 등과 각을 세울 땐 제삼자나 위장단체를 내세워 활동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교회가 주민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하남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놓고 하나님의교회 측과 행정심판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랜선이 미래다" CCC 온라인 포럼 열고 선교법 소개

온라인 소통이 익숙하다는 MZ세대인 대학 청년들이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교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단기선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현실의 난관을 극복할 선교법이자 미래 선교 전략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29일 온라인 줌으로 '2021 CCC 온라인 단기선교 포럼'을 열고,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되는 기독교 청년들의 선교법을 소개했다.

한 선교팀은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등 현지 대학생들을 '코리아나이트'란 이름의 랜선 축제로 초대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캠프를 열었다.

## <2021 교단 총회 결산(하)> 회무 효율화 변곡점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째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한 각 교단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교단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정기총회 회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변곡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가 방만했던 회무 효율화 기회로

0...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106회 정기총회에서 나흘간 진행된 총회 회무를 하루 줄인 사례를 확정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일 총회'를 두 차례나 경험한 총대들이 회무 단축의 필요성을 체감했기에 가능한 결의였다.

예장통합 서울노회의 한 총대는 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올해 총회에서는 헌법 제·개정과 규칙개정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 대부분을 처리했다"며 "1일 총회에서도 산적한 안건을 모두 다뤘다는 경험 이 정기총회 회무 단축 결의를 끌어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서울 종로구의

총회 본부 4곳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국 수준의 설비를 갖춘 2개의 스튜디오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회를 비롯해 각부·실행위원회 회의 중 진행된 '1일 총회'를 두 차례나 경험한 총대들이 회무 단축의 필요성을 체감했기에 가능한 결의였다.

0...예장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은 불필요한 현의안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리해야 할 안건 대부분을 처리했다"며 "1일 총회에서도 산적한 안건을 모두 다뤘다는 경험 이 정기총회 회무 단축 결의를 끌어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서울 종로구의

야 한다. 이은철 사무총장은 "같은 내용의 현의안을 3년이 나 5년 안에 다시 상징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등 총회 차원에서 회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0...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고병진 목사)는 지난해 제110차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일정을 세 차례나 변경한 경험을 한 뒤 총회 규약을 수정하고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먼저 규약부터 바꿨다. 기존 12조 2항은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면 이를 대체할 별도의 총회 소집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를 수정해 임원회 결의로 연기나 총

# 선교의 창 (17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우리가 가야 할 선교적 땅 끝

우리가 가야 할 선교적 땅 끝은 어디인가? 장기든 단기든 사역할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역자로서 첫 발을 띄기 전에 “어디로(Where)”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방향하기 쉽다. 이를 위해 세계 230개 국가 24,000종족을 다 리서치 할 수는 없다. 설사 세계 모든 지역과 부족을 조사한다 해도 딱히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예수께로 가면 된다. 주님께로 가면 자아가 발견되고 자기에게 맞는 사역지역과 대상이 보인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나의 길(My Way)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His Way)의 길을 가는 자이다.

### 1. 땅 끝에 대한 개념 정의

주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대한 핵심 성경구절은 행1:6-8과 마28:18-20이다. 이 두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마28:20과 행1:8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끝 날까지와 땅 끝까지”의 “까지”이다. 이것은 계속적이면서 진행형으로 표현되는 시간

적 개념이다. 두 구절을 함께 하면 “주께서 세상 끝 날까지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가 된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땅 끝은 어디인가? 그 어원을 해석해보면 문자적 표현과는 달리 어디라고 딱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구는 동글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직선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 결론은 땅 끝에 도달한 것으로 마쳐야 함에도 단순히 바울의 로마사역 기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사도행전 1:8절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은 동시적 사역개념이다. A를 다 끝내고 B로 가는 것이 아니다.

초대 교회신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자기 있는 곳에서

**지상 명령(至上命令)은 선교사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다.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각자가 부름 받은 땅을 향해 나서야 한다. 성경이 말한 “땅 끝”이란 지금 내게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

거리로 따져 가장 먼 곳도 지구 한 바퀴 돌면 다시 그림자가 진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땅 끝을 지리적이거나 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곤 한다. 이를테면 지구 반대편이거나 또는 아마존 강변이나 아프리카의 밀립지역 같은 오지(奧地)를 떠 올린다. 선교적 시각으로 볼 때 답은 명료하다. 그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해당되면 무엇보다 지금 내게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 곳이 땅 끝이다.

### 2. 사도 바울에게서 땅 끝

부터 찾기 시작하였고 가는 곳마다 땅 끝이 되었다. 선교사의 모델 격인 바울은 사역을 위해 역 문화적 지형으로 동선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의 영을 따랐다. 그는 2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냐로 간 것이다(행16:6-10). 나중에는 로마를 갔다.

그는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택함으로 지구촌을 한 손에 움켜쥐게 된 것이다. 심장에서 박동된 피가 온 몸으로 퍼져듯 그의 선교적 지형 선택은 옳았다. 그가 만일 아

시아나 아프리카의 한 오지로 갔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바울 사도에게 땅 끝이란 어디인가? 선교적 부담이 있는 선교적 전략지를 말한다.

### 3. 땅 끝을 향해 나아갔던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역사를 보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나온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는 1793년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도 해안가로 갔다. 그로 말미암아 해안 선교시대가 열린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는 1853년 영국에서 중국 상해로 갔다. 1865년도에는 아무 선교사가 없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다. 내지 선교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 교회가 파송 한 최초의 선교사인 에도니럼 저드슨(Adoniram Judson)은 1812 인도를 거쳐 버마로 갔다.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은 아프리카

를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명문 사학이 있다. 바로 경남의 거창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예비 졸업생들을 위한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있다. 이 십계명은 고 전영창 교장의 정신이 담긴 내용이며 지금도 그 내용을 변개하지 않고 도전적 영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②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③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④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⑤앞을 닦아주어 모으려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⑥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⑦사회적 존엄이 없는 곳으로 가라. ⑧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⑨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지 말고 가라. ⑩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무의미하다. 이전 시대가 올림픽의 사격종목에서 고정판을 맞히는 것이라면 현대는 이동판을 맞히는 것이 된다. 선교적 땅 끝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우리 선교도 발 빠르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고 상등문화권에서 하등문화권으로 가는 근세적 패러다임을 고집할 때 도태될 수 있다.

### 맺음 말

내가 가야 할 땅 끝은 어디인가? 이는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선교적 부담이 있는 곳이다. 문제는 내가 “선교적 땅 끝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대부분 인간은 진로나 방향을 설정할 때 이기심이 발동하기 쉽다. 어느 길이 “내게 편하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학교 졸업을 앞둔 새파란 기독교 청년들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외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만족도 없고 불행하다.

선교는 삶의 도피가 아니다. 삶의 전환도 아니다. 성경이 말한 선교(Mission)는 철저히 현재적이면서 진행형이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등상에 있다(There is a Mission on your doorstep). 이로서 오늘 여기에서 선교(Mission)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내일 저기에서 선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는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었던 우리에게도 더 큰 땅 끝으로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jrson007@hanmail.net

### 5. 현대 시대의 땅 끝

현대는 글로벌(Global) 시대이다. 21세기 지구촌은 하나의 선교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기는 1만년 동안의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때와 확연히 다르다. 익히 아는 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産業革命)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더구나 오늘날은 엄청난 정보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혁될지 두려움이 없지 않다.

앞으로 선교의 전, 후방은

선교사인 로버트 모팻의 영향으로 1840년에 아프리카로 떠났다.

카메룬 타운젠드(Cameron Townsend)와 도날드 맥가브란(Donard McGavran)은 고정된 지역보다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 1934년 드디어 미전도 종족시대가 열린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표 격인 방지일(方之日) 선교사는 1937년에 중국 산둥성에 갔다. 이렇게 선교사들마다 바라보는 사역적 땅 끝은 달랐다.

### 4. 거창 고등학교에서 지향하는 땅 끝 원리

한국에는 1953년 기독교정신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 13 예루살렘 회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바울의 생애에 중요한 순간들(Critical Moment)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면 회심과 소명(행9장), 피택과 파송(행13장), 선교 현장의 사역(행13, 14, 16, 17, 18, 19장)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선교 공인(행15장) 등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이방인 선교사로 일하게 된 바울에게 예루살렘 회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과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오순절 성령강림, 교회의 갈등과 집사 선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마리아 선교역사, 사울의 회심, 고넬료로부터 시작되는 이방인 회심, 예루살렘 사도회의, 선교여행, 바울의 로마임송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파 등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에서 예루살렘 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누가는 누가복음 15장 탕

자의 비유 등에서 잃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테넌트(Timothy C. Tennent) 박사나 스트롱(David K. Strong) 박사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갖는 선교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회

의 결정 내용은 현대 선교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보여주는 문제해결 접근법과 원칙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선교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역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역행전’, ‘말씀행전’, ‘교회행전’이고 ‘선교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

회의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장면에서 회의를 갖고 건강한 토의를 하고 생산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회의를 보여줍니다. 사도 보골회의(선거)로 시작합니다. 6장에서 집사 선출회의, 사마리아 교회대표 파송(행8:14), 회심사 사울 허입(행9:27), 고넬료 회심 후(행

###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표현한 회의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선교지향적 열심 드러나

11:1-18), 안디옥교회 선교사 선출, 예루살렘 회의 등등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회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회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수용하려는 회의가 다섯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

적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F.F. 브루스(Bruce), 리처드 보캄(Richard Bauckham) 그리고 윌리엄 파머(William Farmer) 등과 같은 신약신학자들은 예루살렘 회의가 5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행15장과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며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다섯 차례의 예루살렘회의는 독일 신학자 바우어 주

장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Petrine Christians)과 이방인 기독교인들(Pauline Christians)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제1차(행11장1-18), 제2차(갈18-19), 제3차(갈2:1-10), 제4차(행15:1-2, 갈2:11-21), 제5차(행15:6-29) 등입니다. 다섯 차례 회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용하려고 고민했던 초대교회 리더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회의가 내린 결정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선교 지향적인 열심히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이방인들을 수용적으로 언급합니다(행2: 행6: 행8: 행11: 행13). 인종차별(Trans-ethnic)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 네 가지 사항을 금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세 번 언급됩니다. 야고보의 언급(15:20), 회의결정(15:29),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의 언급(행21:25)입니다. 우상제물, 목을 맨 짐승, 피를 먹을 것을 금하고 음행을 금합니다. 이것

은 주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행음에 관한 것을 금했습니다.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디오니소스(로마신화, 바카스)를 숭배하는 종교는 산 짐승과 가죽을 뜯어 먹는 제례(祭禮)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초인적 힘을 얻는다는 미신이 유행했습니다. 음

행도 사교의 여사제(女司祭)들의 행음제례(行淫祭禮)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금지 사항의 출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박뮤엘(Markus Bockmuehl) 박사는 노아계약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보캄(Bauckham)은 레위기 언약(17장-18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학자들은 랍비문서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등장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회의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바리새파 신앙인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간단히 스케치하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발언(5절), 베드로연설(7-11절), 바나바와 바울의 설명(12절), 좌장 야고보의 정리(14-21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방인 입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명제도 지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2차 3차 그리고 로마 선교여행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chap1207@hot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헌신의 본(눅7:36-50) 찬366장

옥함을 깨어 주님을 섬긴 여인의 헌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감격스러운 헌신을 배웁니다(41). 죄사함을 받은 자의 감격으로 옥함을 깨뜨림은 산 제물의 삶을 보입니다(롬12:1-2). 우리는 나의 욕망, 곧, 나의 지성,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바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잔치에서 먼저 대접받은 자만이 주님을 바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4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신 주님은 오는 자마다 힘을 주십니다. 이 감격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바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잔치 대접의 주인공이었으나 실상 죄사함 받은 무명의 여인이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50절).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 화 신앙의 거침들(눅8:1-14) 찬270장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듯이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장과정에 문제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14절에서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뿌리처럼 우리 앞에 놓인 3가지 거침들을 치워야만 합니다. 첫째 거침들은 인생의 염려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필요하지만 세상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떨어뜨립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

님께 맡겨야하며 믿음으로 주께 아뢰어야 합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주님은 상상을 초월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빌4:6-7). 둘째 거침들은 재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곧, 부하려는 마음은 일만약의 뿌리입니다. 물질은 우리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 수 신앙의 거침들(눅8:1-14) 찬197장

본문에 언급한 일락이 성장의 세 번째 거침입니다. 여가선용은 필요하지만 향락에 빠지면 영적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신자는 일락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일전은총을 죄악시 하지 않고 현실에 주어진 은혜를 즐기는 자입니다.

다. 둘째, 사탄이 던지는 탐욕에서 나오는 즐거움은 우리의 신앙에 치명상을 줍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쾌락은 우리를 욕심꾸러기 곧 현실의 우상숭배자가 되게 합니다. 셋째, 주님과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와 성경묵상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재미가 필요합니다. 이 재미가 일락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 목 구원받는 방법(눅9:1-24) 찬499장

본문 2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온전한 구원과 깊이 관계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한 신자의 신앙은 즉석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만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주를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자아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선언

하셨습니다(24). 또 다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고 얻으려면 잃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 금 기도에서 오는 변화(눅9:28-36) 찬202장

하나님나라는 십자가 곧 그의 죽음이 중심입니다. 광채로 나타난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며 아들이심은 죽음을 전제한 곳입니다(31).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첫째,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본 것은 기도하는 때 일어났습니다(32). 둘째, 능력이 동반됩니다(28).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

스와 함께 있는 것이고 십자가중심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셋째,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체현이 일어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허황된 말을 했지만 그 영광을 본 경험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반응이 모두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33). 기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 토 하나님나라의 현재성(눅11:1-20) 찬414장

하나님나라는 그 왕이 오심으로 현재화돼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이 그 나라의 현재성을 어떻게 증거합니까?(20). 첫째, 구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나라는 이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곳입니다. 둘째, 초자연적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부끄럽

게 하는 원리가 그 나라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이미 임한 그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힘씁시다.



##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4)

### 수용이나, 저항이나...편리함 좇아 본질 바뀌서는 안 돼

결론

지난 13회에 걸쳐 필자는 역사의 진실 앞에 오늘의 예배와 찬양의 현실을 조명하여 보았다. 역사 속에 나타났던 예배와 음악을 통해서 본 오늘의 예배 현상은 본질의 정체성을 잃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다소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가 주는 하나님의 역설의 선물이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이 살아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한 로마의 학정 속에서도 살아남아 예배를 지킬 수 있었던 힘, 종교개혁자들이 거대한 로마가톨릭의 표효 앞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며 예배를 개혁했던 힘. 여기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험을 통한 저항(Resistance)이었다.

모험이란 그것을 통해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것이 사실이다. 예배 속에서 음악이 약세사리로 전락하거나 옵션이 되고 삭제가 되고 때론, 예배에서 음악을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음악적 여러 다른 생각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심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되는 큰 요인은 교회음악인들 안에 올바른 교회 예배와 음악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데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은 그 안에 분명한 예배 음악 신학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성서적, 신학적, 그

### ①예배와 음악 신학 정립 ②교회음악의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③전공분야에 특출한 예배 음악인 양성

나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며, 그의 모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냐가 된다고 하는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1898-1986)의 말처럼 모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하고 그 모험을 통한 저항의 힘은 모두를 대표하여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말을 빌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동기에서 나타난 힘이 되어야 그 효력을 크게 발산시킬 수 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예배와 음악을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여러 이론들을 두고 이제는 결정해야 할 두 갈림길에 서있다. 시대적 상황에 의한 수용이나, 아니면 본질에 의거한 저항이나! 우리가 분명히 간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편리함을 좇아 편리함과 본질을 바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필자는 이 연구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예배와 음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전개 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교육에 대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하며 논고를 마치려 한다.

첫째는 예배와 음악 신학의 정립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와 음악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상황과 조건에 쉽게 흔들린다. 특히 코로나가 그것을 더 크게 부추기고 있는

리고 역사적 기초 안에 예배와 음악 신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음악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속에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역들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은 당시의 현대 음악과 중세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악을 잘 조화시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통합 음악을 개발했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역자는 현대와 전통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역자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특출한 예배 음악인을 양성해야 한다.

음악이라는 도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예술이고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극대화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음악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 요소는 실기적 음악 능력과 지도력이다.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의지 안에서 보석처럼 담겨있는 그 소중한 진리들을 맘껏 드러내는 교회음악인이 되어야 한다.

iyoon@wmu.edu  
(끝)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 41. 가정선교는 하나됨으로 완성된다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들(제자들과 성도들)도 내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요17:21-23). 하나됨의 영적 동심원, 즉 제자(성도)들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하나되

복시키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파수하고, 영적 결혼가정을 복음화 시켜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선교이고 가정선교는 하나됨(Be One)으로 완성되어 집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됨에는 5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 (1) 겸손의 원리(마11:29, 빌2:5-8)
  - 순바닥도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듯이, 어느 한 쪽이 겸손하게 양보하고 상대방을 높여 준다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

15, 18:18, 23-35)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여 매임이나 막힘이 있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고, 응답도 없고, 문제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임과 막힘의 줄을 풀고 용서하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4) 사랑의 원리(요13:34, 롬13:8, 고전13:13))
  - 겸손의 원리가 하나됨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고 화해와 용서의 원리가 하나됨

### 겸손, 화해, 용서, 사랑함이 하나됨의 영적 원리 부부연합으로 영육혼이 온전하게 하나됨이 완성

기를 주님은 바라고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다"(엡4:4-6)라고 말하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사도 바울도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지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떤 단체든 모두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마침내 헤어지고, 분열하고 있음이 현실적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 이간질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세지적 사탄의 교회파괴 공작은 가정파괴에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가정을 회

복시킬 수 없습니다. 겸손의 원리는 하나됨의 영적 원리에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 (2) 화해의 원리(마5:24, 고후5:18-19)
  - 화해에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형제들과의 화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와 화해하는 것이 하나됨의 영적 원리입니다.

- (3) 용서의 원리(마6:14-

의 과정 이라면 사랑의 원리는 하나됨의 영적 원리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 (5)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 구해야 합니다.
  - 이상의 4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 구해야 합니다. 하나됨(Be One)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요17:23)이며, 예수님의 바람과 간구(요17:21-22)이고, 성령 역사의 목적(겔 11:19-20)이며, 믿음의 근본(엡4:4-6)이라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 화해, 용서, 사랑하므로 하나됨의 영적 원리에 따라 먼저 부부가 연합하여 영육혼이 온전하게 하나됨이 가정선교의 완성이며, 가정천국과 교회천국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 선교 펴기

###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에서 2021년도 네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신명기 31장 8절).

이제 8월도 지나고 9월입니다. 고국의 날씨가 이제 여름더위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가고 가을기운이 돌아야 할 텐데 곡식이나 과일들이 여물어가는 때에 늦은(?) 장마비가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문제가 된 지도 한 달이 더 지났지만 고국도 이곳 선교지도 걱정입니다. 이곳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하루에 신환이 천명 정도씩 되고 이웃 남아공도 만명 정도씩이었으니 이번 주부터는 이곳은 4백명 전후, 남아공은 7천명 전후로 조금은 떨어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무심해져서 마스크도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매년 새로운 마스크를 구해서 쓴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백신은 접종을 계속해서 13.6% 정도가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각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능하면 경구용)도 빨리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엄령도 아직 남아 있고 통행금지도 계속되지만 그래도 6월말 7월초처럼 정국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일날 교회의 예배모임과 일상생활은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 상황들은 어려운 편인지라 식품공급사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학교의 의대설립에 관한 부분은 고등교육위원회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준비하여 제출한 상태이므로 언제, 어떻게 답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주시기를 믿고 기다립니다.

동역하시던 박재형 교수님은 탄자니아에서 긴급한 교육요청이 와서 3개월 단기사역으로 7월 중순에 탄자니아로 가셔서 현지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곳도 코로나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잘 마치시고 10월

에 귀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8월 초에 개인적 용무 등이 있어서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 주말에 집사람과 함께 귀임했습니다. 우리들의 조심함과 백신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한인선교사님들의 삶이 평강이 넘치는 매일 매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넘치는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매달 약 300가정에 식품공급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교회건축이 필요한 지역교회들의 사정을 알고 도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까지 3곳의 교회 건축을 마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건축자재들의 값이 무척이나 올랐지만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역교회 교인들의 자발적인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되었고 자신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음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 8월에는 5분(윤완규, 권택천, 정연택, 김향숙, 이은영)이 특별후원으로 또는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다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 기도제목

- 필요한 장, 단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의대설립인가에 대한 마지막 과정도 잘 마칠 수 있도록
- 이곳의 한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식품공급 등 제반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이 나라의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결되도록

sykim@cnu.ac.kr

### 그들에게 남은 건...

(3면에서 계속)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새로운 탈레반 정부와 함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⑤아프가니스탄이 극단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20년 전 탈레반 정부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지원자로 알려져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통제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은 새로운 세대의 테러 단체들을 수용하게 될 수도 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답후4:17-18).




Midwest University는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받아 Dallas, Texas 에 항공 조종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과정, ESL 과정을 오픈 합니다.

**Midwest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Pilot, Aviation Management Engineer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Management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FAA)**  
**조종사 면장과정 10-12개월 소요 (FAA Certificate)**

**Certificate Program**  
**항공조종 교관, 항공정비 엔지니어 과정**

\*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 I-20, J-1 Visa)  
 \*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0-12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면장 취득 후 교관과정(2-3개월 취득가능) 취득하여 교관으로 활동하여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 가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Dallas Campu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Tel : (636)327 - 4645  
 E-mail : dallas@midwest.edu

선/교/지/소/식

### 현지 영혼들을 향한 뜨거움...파라과이 이희수 선교사

팬데믹을 지나며 모든 선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파라과이 이희수 선교사 가정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한정숙 사모가 지난 5월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사모를 위해 지난 7월 LA를 방문하여 잠시 쉬를 갖기도 했다. 짧은 기간이나 이곳 LA에서 지인들도 만나고 간증집회도 진행했으나 선교지를 너무 오래 비울 수가 없기에 곧바로 파라과이 선교현장으로 돌아갔다.

이희수 목사는 1976년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청소년 이희수를 부르셨고, 1986년 미국으로 재이민을 와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도 개척했다. 교회 개척하고 7

년이 되던 해 이희수 목사는 섬기던 교회로부터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의 사역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어린이 공황사역과 목회자 연장교육 사역에 몰입했다. 월만한선교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비드로 인해 사역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동신학교를 운영했다.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가 강의를 했다. 생필품을

지금까지 쉬 없는 사역을 위해 섬겨온 이희수 목사는 코비드 기간 동안 4곳에서 매월 8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총 32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희수 선교사가 목회자 연장교육사역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지만 현지 목사들 가운데 신학을



이희수선교사 부부

### 목회자 연장교육 사역, 어린이 공황사역 위해 서둘러 귀환

준비해 공황사역 어린이들을 찾아갔다. 이 일에 현지인 동역자와 한국 청년들이 동참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찬양과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졸업한 사역자들이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은 간증, 찬양이 길다. 바른 설교를 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자연히 예배는 길어진다.

로 돌아가 여전히 귀한 사역을 이어 오고 있다.

다음은 9월 사역 소식이다. △지난 9월 Encarnación 시에서 교회지도자 세미나를 하



어린이공황사역을 진행하는 모습

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세미나(성서지리학, 교회사, 특강: 사도신경)를 이수한 9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현재 6개 주에서 Movil Seminario를 진행하고 있으며 320명이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내년에는 2개주에서 더 Movil Seminario(이동 신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공황 사역이 매주

토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

아직 팬데믹 기간이라 선교원예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대신 네 마을을 찾아가 길거리에서 사랑의 음식나눔 사역을 하고 있다. 섬기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은 400여명 정도다.

jesuscbsw@gamil.com (이성자 기자)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전염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지만 B형 및 C형 간염이나 에이즈균은 혈액이나 체액 등에 의해서 병이 전파된다. 독감바이러스의 인체 간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도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B형 및 C형 간염이나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B형 및 C형 간염, 에이즈는 미국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 전염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질환이다. 이중 B형 간염은

년 이전에 수혈을 받거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성적인 접촉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접촉, 즉 악수나 가벼운 포옹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수건을 같이 쓰는 정도로 전염되지 않지만 음식을 같이 먹거나 담아서 먹거나 물컵

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B형 간염은 가장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간염항원검사를 받고 항체가 없는 경우는 예방백신을 3회에 걸쳐서 접종받아야 한다. 자신의 체액이 B형 간염 환자의 혈액과 접촉되었다고 생각되면 B형 간염 항체주사를 맞아야 한다. C형 간염은

일단 C형 간염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에이즈 환자의 혈액과 접촉한 경우는 에이즈 치료를 받을 때 복용함으로써 유병률을 80퍼센트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질환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성적인 접촉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면 전파를 줄일 수 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여성은 일단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문의:213-383-9388

### 호흡기와 혈액 체액 전염 분별

전염성이 가장 높는데 마약 복용자들이 주사기를 돌려가면서 사용했을 때 전염이 될 수 있고, 바이러스 간염이나 에이즈에 대해 진단 능력이 없던 1980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구강 점막의 상처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다음과 같

B형 간염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떨어지고 다량의 혈액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C형 간염에 대한 예방 주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 욕망하는 인간 그리고...

(2면에서 계속)

자신이 기획한 게임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은 부정당하고 만 것이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징어 게임'을 결핍의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욕망하는 인간, 그리고 그 욕망의 결핍을 다루는 드라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욕망의 존재'라고 했다.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사랑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됐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중요한 건 이 기록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마22:37-38). 이 핵심 욕망뿐 아니라 주변

욕망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22:39).

하나님 사랑이란 핵심 욕망이 우리 안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웃에게 자기 사랑 이상의 사랑, 즉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초대 교부들은 왜곡된 욕망이 끊임없이 신자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3-4세기 사막 교부들이 언급해온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등의 '대죄' 항목이다.

교부들은 왜곡된 욕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 매일 죄를 직시한 뒤 다시 십자가를 보는 '바라봄'의 영성을 실천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에서 죄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이전에 죄로 불리던 것들은 심리 현상과 정신질환, 태도의 문제로 축소됐다. 한마디로, 우리는 위선으로 왜곡된 욕망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다. 크리스트마저도 이들 욕망이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잃어간다.

마지막으로, 욕망하는 인간의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오직 진정한 "간부(에피소드 6회 제목: 어린-시절, 새끼손가락 마주 걸어 편을 함께하던 내 팀, 짝꿍, 동지를 의미)"이신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세상은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처럼 단계를 거쳐 승자가 될수록 더 피폐해져가고 있다. 생존 이외에는 어떠한 기쁨도 공유

할 수 없는 고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간부이시기에, 우리는 욕망이라는 전차가 무한 속도로 질주하는 이 세상에서 공황과 믿음 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서 친구가 될 수 있다. 오늘은 못 했어도 내일은 보완해 나아갈 기회를 주면 사람들은 반칙 대신 원칙을 따른다. 한 명만 남기지 않고 가능하면 모두 갈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뒤쳐진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된다.



# 스마트폰 사용법 바로 알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에서는 윤승준선교사(재미있는 IT 대표)를 초빙하여 '크리스찬들이 스마트폰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ZOOM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크리스찬이 스마트폰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일시: 2021년 10월 23일(토) **서부시간/오전 10시** **동부시간/오후 1:00**

대상: 목회자 및 성도

회비: 무료

Zoom 회의 참가

회의 ID: 881 4180 4062

암호: 857645

문의: 미주크리스천신문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윤승준 선교사 909-971-7720

재미있는 IT 대표 선교사  
41년 경력의 IT전문가  
방송인/작가/IT 전문강사

세계 최초 찬송가 자동반주기, 골프거리측정기, 버스도착 알리미 개발

저서: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스마트폰이 재미있게 놀자' 외 다수

윤승준 선교사

